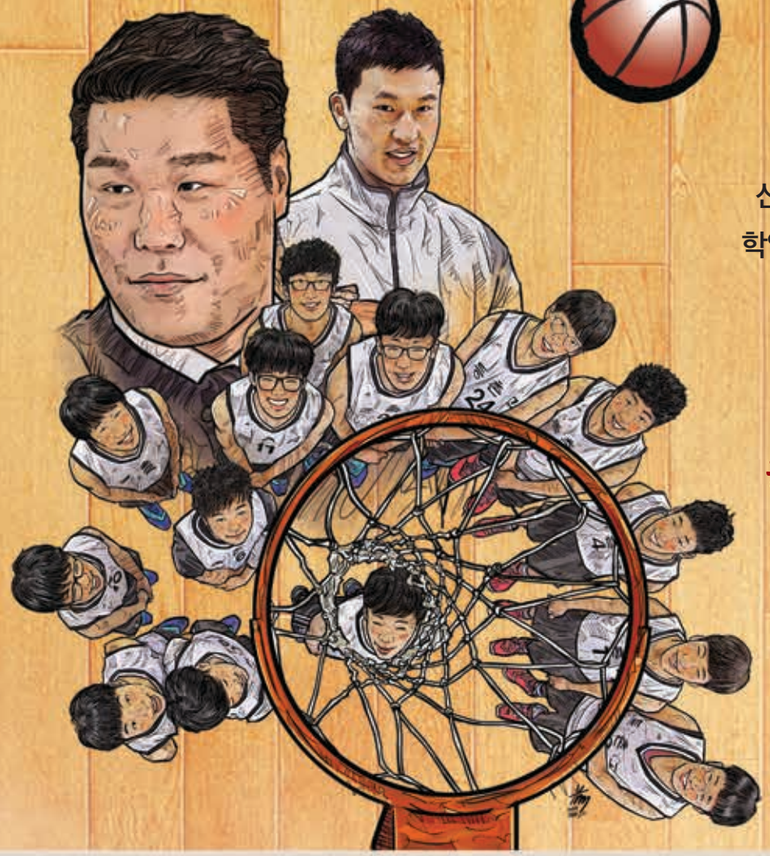
2016 학교체육 프로젝트

우리들의 고교시



학교체육은 종합비타민입니다.
신체적 건강 유지·증진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집중력, 창의적 사고,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돕죠.

건강한 습관,
학교체육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1시 20분
(20부작, 5~9월)

교육부 KBS 한국방송

2016년 6월호

교육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행복한 교육

교육개혁_ 일학습병행제 확산
진로교육 5개년 계획
화해와 상생을 위한 동북아 교육
2017 대입과 수능, 준비전략



Contents



06



11



15



20

현장 이야기

02 **꿈이 영그는 현장**
세종누리학교

06 **삶과 교육**
조재윤 군산 동원중학교 교감

10 **이런 수업 어때요_초등**
손해선 수석교사의 'Q&E 학습법'

14 **이런 수업 어때요_중등**
고영애 사회교사의 '에르디아 토론수업'

18 **에너지충전소**
같이놀자교사연구회
경기도중등중국어교육연구회

20 **화제의 교사**
차승민 창원 광려초등학교 교사

정책 이야기

함께 하는 교육개혁

36 국민행복을 위한 교육개혁
38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운다, 일학습병행제 확산
40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능력중심사회 구현

기획 꿈과 끼를 찾아가는 행복로드맵, 진로교육 5개년 계획

24 진로교육은 행복한 가정에서부터
26 '아이들이 꿈꾸는 곳'으로 학교는 변화 중
28 진로교육 내실화에 전방위 지원 팍팍
30 꿈과 끼 살리는 행복한 진로 설계 기반 마련

34 **클릭, 교육부**
新시대를 여는 대학의 동반자, 대학정책관

42 **초점 I**
대학입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변화된 입시를 위한 준비 전략

46 **청년들에게 꿈을**
취업 걱정 없는 '계약학과'

48 **정책카툰**
주문식 교육

정보 이야기

교육논단 화해와 상생을 위한 동북아 교육

50 한·중·일 화해와 긴장의 시대
52 동북아 교육의 목표와 실천, 새로운 접근

54 **초점 II**
정부 학자금지원 정책을 통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58 **시도교육청 플러스_** 교실수업개선
대전/부산/충북/대구/전남/울산

62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제13회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수기_ 경북 진보초등학교

66 **세계의 변화 교육의 진화**
인류지성사의 중심, 프랑스

68 **학급경영노트**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 학급긍정훈육법

70 **명예기자 리포트**
일본, 등교거부 학생을 위한 새로운 학교 탄생 外

74 **자녀교육 Q&A**
공부머리 키우는 여섯 가지 기능(上)

교양 이야기

76 **생각나눔**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방법

78 **뉴스브리핑**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발표 外

80 **행복게시판**
구독신청 & 五자만담



Vol. 407
June 2016

COVER STORY

'찾아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는 진로체험의 기회가 적은 농산어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 파주 봉일천중학교(교장 전윤수) 학생들이 '찾아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로 진행된 요리사 진로체험에 참여하고 있다.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시의 첫 특수학교, 전국 특수학교 중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획득 등 세종누리학교에는 여러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지난 5월 4일 학교단위에서는 이례적으로 비전선포식을 열고 개교 축하행사와 더불어 특수교육 발전을 선도할 포부를 제시하기도 했다. 가장 젊으면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첫 특수학교로서 세종누리학교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세종누리학교

장애물 없는 학교에서 특수교육 날개를 펴다



01


02


03



04

01 세종누리학교의 비전선포식
02 층간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 일반 경사로에 비해 완만하게 제작되었다.
03 교실과 교실 사이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04 온수기, 샤워부스, 욕실용 침대 등이 설치된 모자화장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란?
장애인 등이 시설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설계·시공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세종누리학교는 전국의 특수학교 중 제1호, 세종시 제1호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지난 4월 25일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세종누리학교는 장애에 굴하지 않는 순수한 의지를 가진 학생,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직원, 학생에 대한 희망을 가진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져 최고로 행복한 학교, 최고의 교육효과를 내겠습니다."

세종시의 특수학교 초대교장으로서 정민호 세종누리학교 교장은 5월 4일 가진 비전선포식에 이같이 선언했다. 이날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세종누리학교가 특수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모델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장애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획득

지난해 9월 고운동에 문을 연 세종누리학교는 전국의 특수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4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았다.

학교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흔적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우선, 장애학생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기둥이나 벽면 등 장애물은 과감하게 없앴다. 모든 교실 바닥에는 난방시설을 하였다. 교실과 교실 사이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문은 폭1m(휠체어의 경우 80cm이상)의 미닫이문으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화장실이 여닫이문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닫기 불편한 구조였죠. 이후 설계를 변경하여 여닫기 편한 미닫이문으로 교체하고, 자동 버튼식으로 바꿨습니다." 최기상 교감의 설명이다.

공용화장실에는 일반 화장실 외에도 모자(母子) 화장실을 둔 것이 특징이다.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용변 실수가 있을 경우, 보호자가 함께 들어가 간단히 씻겨 옷을 갈아입힐 수 있도록 간이 온수기와 샤워부스, 그리고 욕실용 침대도 설치하였다.

또한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폭2m 길이의 엘리베이터를 3대 설치하였다. 이 정도 크기라면 휠체어 6대 혹은 이동식 침대도 이동이 가능한 수준이다. 복도의 폭은 3.5m로 일반학교의 복도 폭(2.1m)과 비교하면 훨씬 넓다. 복도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고, 복도에는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층간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도 설치하였다. 이 경사로는 4.1~4.4도로 일반적인 경사로에 비해 더 완만하게 만들어졌다. 그밖에도 모든 문에 부착된 세로형 손잡이, 학습 겸 작업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판이 넓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기능성 책상, 모든 모서리가 라운딩으로 처리된 서랍장 등 곳곳에 장애학생의 눈높이를 고려한 세심한 손길이 묻어난다.

전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현재 세종누리학교의 학생 수는 66명. 유치원(영아반 포함), 초·중·고 특수학교 공립교육 전 과정 수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고교 졸업 후 직업훈련과정으로 도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을 배울 수 있는 전공과가 개설되어 현재 17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중증장애학생의 비율은 80%를 넘는다.

연면적 13,044m² 지상 4층 규모의 세종누리학교에는 학년별 교실, 음악실, 과학실, 미술실, 공예실, 전공과교육실 등 수업별 교실 외에도 언어치료실, 체력단련실, 심리안정실 등이 고루 갖춰있다. 그밖에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교직원의 아이디어로 꾸민 '의미 있는' 공간들로 넘쳐난다.

고등·전공과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4층에는 숲속공간으로 새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원두막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꽃도 피울 수 있다. 중학생들이 생활하는 3층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족관을 만들었다. 신체활동이 많은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유휴공간에 이야기나눔터와 생활 속에서 교통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장도 만들었다. 이곳에서 미니카를 타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연습 등이 수시로 이뤄진다. 2~4층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 독서하며 휴게실처럼, 문화공간처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1층과 2층에는 운동공간인 체력단련실, 손과 눈의 협응력을 기르는 게임존, 어린이의 안전놀이터 플레이 존


05

도 설치되어 있다. 1층 카페와 플레이존은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탄생한 공간이다.

정효남(초등특수·32세) 교사는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장애물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육과정, 시설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 각 층마다 테마별로 조성이 되었는데, 행정실 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수시로 모여 아이디어를 모아서 장애물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한다.

미래 특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

그동안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면 올해에는 비전선포식을 기점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보다 많은 열정을 쏟고 있다. 학교기업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도 진행형이다.

우선, 첫 과제는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육활동이다. 세종누리학교는 조치원신봉초, 도담중, 양지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누리학교 학생들은 월1회 각 학교를 방문해 함께 수업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경험과 대인관계


06


07

05 취업에 역점을 둔 교육과정이 바리스타 과정이다. 전교생이 하교한 조용한 학교에 교사들이 모두 모여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다.

06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컴퓨터

07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하교하고 있다.

08 3층에 마련된 교통안전교육장

09 휠체어 6대 혹은 이동식 침대도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

10 세종누리학교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공간이다.


08


09


10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은 사회성을 키우는 기회로, 일반학생은 장애인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과 장애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밖에도 충남대 예술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 축제를 통해 자연과 계절 속에서 어우러지는 교육을 해오고 있다. 학교 내 에어 풀을 활용한 가족 물놀이 잔치, 학부모와 함께하는 합창 동아리도 운영 중이다. 토요일에는 플라잉디스크, 배드민턴, 실내조정교실을 비롯해 놀이운동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한 개별 학생에 맞춤식 진로교육을 해오고 있으며 방과 후 활동과 연계한 직업기능대회반을 개발하여 지도하고 있다. 초·중·고·전공과로 이어지는 진로교육도 활기를 띠고 있다.

최기상 교감은 "취업에 역점을 둔 교육과정이 바리스타 과정이다. 세종시에 공공기관, 출연기관을 포함하면 50곳이 넘는다. 관공서 1층에 장애인기업을 두고 카페테리아를 많이 운영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식품가공(로스팅) 과정, 대인서비스 과정 등을 운영 교육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구성원들이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만드는 교육은 빛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학교, 디딤돌이 되는 학교, 특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를 지향하는 세종누리학교는 오늘도 분주하다.

INTERVIEW

"특수교육을 리드한다는 사명감 느껴"



세종누리학교 초대교장 **정민호**

| 현재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현재 정원 66명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누리학교에 오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세종시의 장애학생은 320명이며, 이중 70%는 특수학급 혹은 완전 통합교육 대상자이다. 나머지 30% 가량 100여 명의 장애학생이 대상자이다. 현재 타 시·도에서 전학문의가 많다. 학생정원 220명으로 인가 받았지만 150~160명이 적정인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교가 적정 규모가 됐을 때 시너지효과가 생긴다. 고도화된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학교기업을 생각하고 있다. 누리학교도 적정 규모, 인프라를 갖추면 학교기업을 만들어서 사회통합을 이룰 계획이다.

| 학교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교장 혼자서 교직원 33명의 아이디어를 따라갈 수가 없다. 지난해 9월 학교가 텅 빈 상태로 개교를 했다. 그 후 교직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내서 공간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개교와 동시에 보다 완벽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논해서 천천히 채워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특수교육은 전 직원이 함께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우리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하고, 똑같은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 세종누리학교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우리학교는 세종시에 위치한 유일한 특수학교다. 단위학교의 교장이지만 세종의 특수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게다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교육부와 인접해있기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세종누리학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초대교장으로서 세종시의 특수교육을 리드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인근에 연구, 연수회 기능을 갖춘 세종특수교육연수원이 들어선다면 세종누리학교가 특수교육을 리드하며 빛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것이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높게 뜬 공이 네트를 넘어오자 헤딩으로 받아내 인사이드 킥으로 연결한다. "아자아자" "좋아좋아" "화이팅" 서로를 격려하는 우렁찬 함성이 경기 내내 이어진다. 경기장 안팎을 후끈 달군 땀과 열기 속에 선수와 관객은 어느새 하나가 된다. 삐익- 경기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상기된 얼굴로 서로의 손을 맞잡는다. 점심시간, 중학생들과 함께 '뛰어노는' 조재윤 교감이 여기 있다.



01

조재윤 군산 동원중학교 교감

하하 깔깔 웃음바이러스 퍼뜨리는 '관심전도사'

전국 학교급식 콘테스트가 열린다면 군산 동원중(교장 양재호)이 단연 으뜸일 터이다. 갖가지 신선한 나물에 고기튀김, 쭈꾸미 볶음, 된장국까지 식판 한가득 받고나니 기자의 평소 식사량을 넘어선다. 이 놀라운 급식이 예사롭다는 듯 조재윤 교감이 짧게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일어선다.

"아이들과 족구하기로 했거든요. 천천히 드시고 나오세요."

총총히 사라지는 뒷모습이 '먹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좋은 중학생 제자들과 꼭 닮았다.

함께 공차고 씨름하는 '모나미 선생님'

조재윤 교감은 올해 예순이다. 탄탄한 체격과 건강한 기운이 그의 나이를 지운다.

"마음은 거리에 비례합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서보세요. 선생님을 부르며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드는지, 선생님을 피해 달아나는지…. 교사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아이들도 교사에게 스스로 다가옵니다."

1978년 첫 교단에 선 이후 9개 중학교에서 37년 반을 근무하는 동안 '아이들과의 소통'은 조재윤 교감에게 결코 놓을 수 없는 화두였다. 초임시절엔 하숙방에 이불을 펴놓고 제자들과 씨름판을 벌이기도 했다. 교문지도가 살벌하던 시절에도 그는 하이파이브로 아이들을 맞아주었다. 당시 유행하던 문구회사 이름을 빌어 학생들은 그를 '모나미(친구)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군산의 한 중학교에 근무할 때, 소위 '문제아'로 지목되어 교사와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축구동아리를 만들었다. 가만히 보니, 수업시간에 딴 짓만 일삼는 아이들도 공을 찰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더라는 것이다. 학교 예산에서 유니폼과 대회 출전 경비까지 확보해 아이들을 '폼나게' 뛰게 했다. 다만, 무단결과나 무단결석, 지각, 수업방해 등 교칙에 위배되어 학생부에 지적되면 무조건 탈퇴시키겠다는 조건으로 동아리를 이끌어 나갔다. 일명 '축구 외인구단'은 전라북도 청소년클럽 대항 축구대회에서 16개 팀 가운데 준우승을 차지하며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랑이 되었다.

"쾌거를 이루면서 아이들의 생활태도가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체육대회나 축제 등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



02

01 02 고교시절 축구선수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을 정도로 조재윤 교감의 운동 실력은 대단하다. 그는 틈틈이 중학생 제자들과 족구를 즐기며 마음을 통하고 있다.

03 조재윤 교감 곁으로 모여드는 아이들은 대화 내내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린다. 그가 언제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술술 내놓는 비결은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따거나 마술을 익히는 등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늘 준비하기 때문이다.

04 동원중학교 자투리공간에 흰색 페인트로 전통놀이판을 그려 넣자 학교는 재미난 놀이터로 거듭났다. 교육은 행복을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조재윤 교감의 작은 실천이 낳은 큰 변화이다.





했어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즐거운 일이 하나쯤 있어야지요."

지난해 9월 군산지역의 명문으로 꼽히는 동원중학교에 교감으로 첫 부임한 이후 학교 구석구석은 그의 손길을 거쳐 '재미난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원중은 운동장이 비좁아 축구경기를 8명씩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조재윤 교감은 학교 자투리 공간에 족구장을 마련했다. 또 중정(中庭)에 사방치기, 가위치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그리자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즐거운 놀이에 빠져들었다. 변화라면 그저 조재윤 교감이 일일이 치수를 재어 그린 흰색 페인트 선이 전부였다.

"스포츠나 단체놀이를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규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공을 튕기다 보면 차 위에 올라가고 담을 넘어 날아가고 위험천만 하지요. '그만해! 조심해!' 하기 전에 경기장 선을 딱 그어놓으니 더 이상 공이 제멋대로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체 속에서 감수해야 할 '아름다운 구속'을 익혀나가야 합니다."

마음은 가깝게, 원칙은 철저히!

아이들과 마음을 다해 어울리되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는 조재윤 교감은 사소한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운동화 등 복장은 반드시 갖출 것을 요구한다. 실내화를 신고 나오면 당장 퇴짜다.

밤 12시 취침, 아침 6시 기상, 오전 7시 35분 출근. 그의 흐트러짐 없는 일과다. 뿐만 아니라 교직 37년 중 23년간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을 불러 깨운 '나이트콜'에서도 그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아침잠을 깨워주는 '모닝콜'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나이트콜'은 뭐란 말인가.

"3학년 담임을 하면서 고입 준비를 위해 하루 여섯 시간 취침을 생활화하도록 독려했지요.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은 이 정도 수면만 취해도 충분하다고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밤 11시~11시 30분 사이에 우리반 아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뭐하고 있었니?' '공부하면서 어려운 것은 없니?' 물으면서 함께 잠을 쫓았지요. 담임선생님의 전화는 전화벨이 딱 한 번 울리자마자 받기로 서로 약속했어요. 몇몇 투덜대던 아이들에게 원치 않은 사람은 빼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들 스스로 '전화해 주세요.' 하더군요. 아이들도 진심으로 다가서는 선생님의 구속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담임생활 내내 하루에 한 명씩 학생들과의 만남도 계속됐다. 일주일에 다섯 명의 학생들과 개별상담을 진행하는데, 등교 후 수업시작 전, 점심시간, 종례 후 하교 전까지 학생이 좋은 시간으로 골라 대화를 이어나갔다. 학생과의 1대1 만남은 전 학급생을 마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끊임없는 순환프로젝트였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다 들어주자,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생각으로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먼저 가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식의 나름 소통의 교육도 병행했지요. 교사는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둘러싼 환경, 즉 위·아래(가족관계), 앞·뒤(경쟁관계), 좌·우(교우관계) 등 여섯 가지 상황을 헤아리고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조재윤 교감의 지극한 정성은 한 인생을 되돌려 놓기도 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행으로 퇴학 위기에 놓였던 어느 제자의 일이다. 당시 담임이었던 그는 '또다시 문제를 만든다면 담임으로서 사표를 내겠다'고 학교 측에 약속한 후 해당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로부터 아침마다 전화해 등교시키고 곁에 두고 일과를 챙겼다. 학교 밖을 서성였을 아이는 그렇게 조재윤 담임선생님의 품안에서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듬해 스승의 날에 아이가 학교를 찾아왔다. 선생님을 업고 너른 운동장을 한 바퀴 돌더니 흙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관심은 이렇게 변화를 낳았다.

시드는 꽃을 되살리는 힘

늘 운동장에서 그을린 채 뛰고 있는 조재윤 교감을 보고 체육선생님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실 그는 역사선생님이다. 아이들이 49대 51의 긍정적 사관을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사를 가르쳐왔다. 그의 수업은 '재미있는 수업'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야기 식 수업방법, 퀴즈학습, 퍼즐학습, 빙고 게임, 연대순 노래 부르기 등 지루할 틈이 없다. 수업 종료종이 울리면 '아~ 벌써 종쳤어!'가 아이들 입에서 터져 나온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 재미있게 어울릴까 고민하다가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지금은 마술을 배우고 있는 중이지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힘을 받습니다. 교사가 늘 준비하지 않으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어요. 아이들과 더불어 사제동행하는 학교생활이 아이들과의 거리를 줄이는 첩경입니다."

교사가 세심한 관심을 가진다면 아이들이 지닌 각양각색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조재윤 교감. 그는 아프리카 밀림에 산다는 희귀식물 유추프리카치아를 떠올린다. 너무 예민해서 한 번 건드리면 죽어버리는 유추프리카치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꾸준히 건드려주는 것이다. 교육은 관심이다.

학습주제에 따라 모르는 것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아는 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Q&E 학습법'은 교육의 기본과 닮아있다. 손해선 수석교사는 "새로운 교수법을 시도하다 번번이 강의식 수업으로 회귀하는 동료교사들을 위해 수업부담이 적으면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Q&E 학습법'을 만들게 됐다."고 소개한다.

손해선 수석교사의 Q&E 학습법

친구가 질문하고 친구가 답하면서 개념이해 쑥쑥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아는 것을 설명하는 Q&E 학습법.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 낯설지 않다. 손해선 수석교사와 박순덕(경기 은계초) 수석교사가 함께 연구한 Q&E 학습법은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하브루타' 수업, 집에서 미리 과제를 보고 배운 내용을 친구 앞에서 설명하는 '거꾸로 학습', 학생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여 소통하면서 배우는 '협동학습'의 장점을 우리 교육 현실에 맞춰 적용했기 때문이다.

손해선 포항 장량초 수석교사는 "하브루타는 토론 위주여서 40분 동안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고, 거꾸로 교실은 학생들이 차츰 과제(미리 제작된 동영상 보기)를 안 해오면서 수업참여도와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등 우리나라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한다. 'Q&E 학습법'에는 올해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는 베테랑 교사의 교실수업 노하우가 총망라되어 있다.

궁금한 것은 물어보라

Q&E 학습법을 만들어 3년째 교실수업에 실천해오는 손해선 수석교사와 포항 장량초 5학년 학생들이 펼치는 실과시간은 어떤 분위기일까.

유기농 농법과 유기농 축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이 수업의 매력은 학습주제에 집중하여 궁금한 것을 마음껏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다.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활동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을 질문으로 만든다. 스스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Q&E 학습에는 질문과 설명을 쓰고 학습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고안한 Q&E노트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학생들은 'Q&E노트'에 2~3개의 질문을 만든다. 이렇게 완성된 질문은 일차적으로 짝지어 질문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해답을 찾아나간다. 짝과 해결하지 못한 질문은 반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간다.

"오리농법, 참게농법, 우렁이농법, 지렁이농법, 천적을 활용한 농법 외에 친환경 농법이 더 있나요?"(질문)

친구의 질문에 한 학생이 "어제 우연히 뉴스에서 봤는데, 미꾸라지농법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축사 간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질문)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전염병이 돌 때 옆의 축사에도 병을 옮길 수 있어요.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학생 대답)

01 학습주제에 집중하며 궁금한 것을 마음껏 물어보는 아이들

02 짝과 질문을 주고 받으며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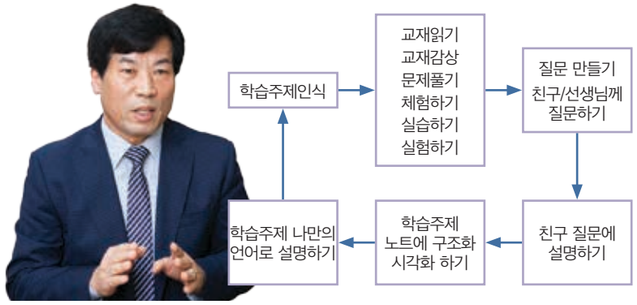


01



02

손해선 수석교사의 Q&E 학습노하우



Q&E 학습은 교사가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학습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학습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질문하고 설명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습방법입니다. Q&E학습연구회(cafe.daum.net/q-and-e)에서 보다 많은 수업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수학과

수학과의 경우 교재(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것만을 질문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분수의 통분에 대해서 배운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분수 전반에 걸쳐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학습주제에 집중하면서도 질문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좋다. 통분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통분하는 이유, 분수의 종류 등 모든 것이 질문이 될 수 있다. 다만 설명할 때는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다.

사회과

초등 사회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이다. 예로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에 대해서 배운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 사건의 원인, 사회적 영향까지 질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가령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식의 단편적인 질문을 피하도록 지도하자.



03

03 Q&E 학습에는 '하브루타'의 질문하기, '거꾸로 학습'의 설명하기, '협동학습'의 소통하기라는 장점이 결합되어 있다.

04 Q&E노트

05 Q&E노트를 통해 스스로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점검할 수 있다. 장량초 5학년 1반 아이들과 손해선 수석교사

04

"온실가스가 뭐예요?"(질문)

대답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자 이번에는 손해선 수석교사가 직접 나섰다. 비닐하우스의 온실효과를 비롯하여 지구의 온난화, 온실가스 등을 설명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질문하는 학생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김지원 학생은 "평소에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처음엔 질문을 만드는 것도, 질문을 하는 것도 어색했지만 지금은 수업시간에 질문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말한다.

개인적인 질문 외에도 수업을 하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질문과 설명 형태로 Q&E노트에 정리한다. Q&E노트 하단에는 그날 배운 내용을 마인드 맵이나 씽킹 맵으로 정리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익힌 내용을 다시 한 번 자신만의 방법대로 정리하고 이것을 토대로 짝에게 설명하면서 배움을 다지는 식이다. 이 과정은 마치 그날의 학습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머리에 저장하듯 기억에 오래 남는다.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는 것의 의미

수업시간, 무관심한 학생을 어떻게 수업에 참여시킬까 고민하지 않는 교사는 없다. 손해선 수석교사 역시 다양한 교수법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 학습자료를 활용했다고 한다.

"평소 교실수업을 공개수업처럼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공개수업은 철저히 교사에게 맞춰진 수업입니다. 평소엔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새로운 교수법을 시도하다 번번이 강의식 수업으로 회귀하는 동료교사들을 보면서 교사에게 부담이 적으면서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Q&E 학습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손해선 수석교사는 Q&E 학습과정을 변신 로봇장난감에 비유한다. 장난감의 변신과정을 알고 싶어 호기심을 갖고 하나하나 분해하는 과정은 Q&E 학습의 교재읽기, 교재감상, 문제풀이, 체험하기, 실습하기, 실험하기의 과정으로, 더 알고 싶어 주변사람들에게 묻고 또 묻는 과정은 질문 만들기의 과정이다. 변신 원리를 파악한 후에 다시 장난감을 조립하는 과정은 학습주제 구조화, 시각화 과정이다. 조립을 마친 아이가 부모에게 작동원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과정은 Q&E 학습에서 학습주제를 나만의 언어로 설명하는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다른 친구나 선생님이 변신로봇에 대해 물으면 신이 나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과정은 내면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05

"학생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면 옆의 친구나 선생님에게 물어서 공부할 수 있지만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친구나 선생님을 따라할 수밖에 없고 따라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상태에서 외워야 되고 금방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만들기, 질문하기, 설명하기는 학생에게 꼭 필요한 학습과정입니다."

가르치지 말고 참여시켜라

또한, 손해선 수석교사는 "질문하는 사람도 설명하는 사람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마치고 질문하라고 하는데 질문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수업 중간에 질문함으로써 수업분위기를 깰까봐 부담을 느끼거나 엉뚱한 질문으로 망신은 당하지 않을까,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Q&E 학습에서는 질문의 질을 따지지는 않지만 교과서 속에 설명된 질문은 지양한다. 교재를 읽고 모르는 것은 모두 질문이 된다.

Q&E 학습법은 교사입장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들으며 학습결손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충할 수 있어 좋다. 또한 질문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자라난다. 게다가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꼼꼼하게 교재를 읽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적극적으로 찾는 등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진지해 진다.

물론, 언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교사는 교재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미리 질문을 예측해보는 등 수업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Q&E 학습에서는 시끄러움을 허용하고 친구가 하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아는 대로 성실히 설명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교사의 순발력도 중요해요.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모른다고 즉시 알리고 혹시 교사대신 설명할 아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설명할 기회를 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얼버무리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이들과의 신뢰에 있어 좋지 않아요."

모르는 것은 질문할 수 있는 힘, 아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힘, 바로 Q&E 학습의 힘이다.

경기 성남 복정고등학교(교장 이은원) 고영애 수석교사는 10~15분의 짧은 토론을 수업 안으로 끌어왔다. 수능을 앞둔 인문계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토론'을 제시하자, 수업은 어느 때보다 활기차졌다. 고교 수업에서 학생활동 수업은 불가능하다는 편견은 과감히 깨졌다. 오히려 학생들이 더 원한다는 고영애 수석교사의 수업을 소개한다.

고영애 사회교사의 '에르디아 토론수업'

생각의 힘을 기르는 '진지한 대화'식 토론

수능을 앞둔 여느 인문계고 고3 교실과는 달랐다. 4명씩 모둠으로 둘러앉은 20여 명의 학생들은 수업 내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수업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서로 편안하게 나누는 대화에 더 가까웠다. 한 학생의 '언젠가 뉴스에서 봤던 얘긴데 말이야.'로 시작된 모둠 간 대화는 이날의 학습주제인 법치주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생각 열기로 '진지한 대화' 시작

경기 성남 복정고등학교 3학년 8반 교실. '법과 정치'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모둠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수업은 개념정리에서 시작됐다. 법치주의의 의미와 유형별 특징을 강의와 문답을 통해 학습한 아이들은 '법'이라는 큰 주제로부터 사고를 확장해 나갔다.

대화의 물꼬를 튼 건 '프리즘 사진'이다. 각 모둠별로 15장 내외의 사진을 보고 각자 법이 연상되는 사진을 하나 둘 고르다보니 얘기는 더욱 풍성해졌다. "화재 현장은 나중에 책임 문제를 따질 때 법이 필요하지 않겠어?" "짬짜면처럼 법도 균형이 생명이지." 서로 느낌을 주고받으며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후 아이들은 각자 법의 중요한 요소를 4~5개 단어로 표현했다. '규칙', '헌법', '벌금', '정당성'부터 시작해 '자유'와 '문화' 등 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드러났다.

"자유를 쓴 이유는 뭘까요? 법의 기본권 중 하나죠? 조금 특별한 단어도 있네요. 문화를 쓴 이유는 기본권이 잘 보장된 사회의 문화라는 뜻에서 쓰였습니다."

고영애 교사는 학생들과 전체토론으로 법의 요소를 짚어보고, 법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할 다양한 소재들을 찾는 데 주력했다.

'질문 만들기'로 생각의 힘 기르기

애깃거리가 많아진 학생들은 각자 질문을 만들기 시작했다. 모두 5개 이상 질문을 써 내려 가는데 거침이 없다. '법이 너무 어려우면 국민들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하나?'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만들면?'….

박지성 군은 '악법도 법인가?'를 묻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지킬 수 없어." "안 지키면 처벌을 받는데?" "저항권을 행사해야지."

오고 가는 대화가 뜨거운 질문은 모둠별 베스트 질문으로 뽑았다. 모둠별 베스트 의견에 대해 반 아이들은 전체토론에서 '빨강(반대), 파랑(찬성), 노랑(중립)'으로 신호등 표지를 들고 의견을 표시했다. 특히, '법은 통치자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물은 2조는 공감토론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통치자에게는 제약이 돼요."



01



02

01 학생들이 비주얼씽킹으로 그린 그림을 통해 개념을 설명하는 고영애 수석교사

02 공감토론에서 신호등 표시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학생들


03


04


06


07

03 06 한 단어로 학습주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이 드러난다.

04 시각적으로 학습개념을 설명하는 비주얼씽킹은 10분 토론과 함께 고 교사가 자주 활용하는 수업 기법이다.

05 수업 마무리는 수능문제 풀이를 통해 인문계 고교 학생들의 대입 준비를 돕는다.

07 10~15장의 '프리즘 카드'로 인해 학습주제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하영)

"하지만 법을 잘 알고 있는 통치자에게만 유리하죠." (지성)

"통치자에게 유리하면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지 않을까요." (소휘)

토론이 끝난 후 김예지 학생은 "공감 토론을 하면서 모두가 찬성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게 됐다."며 "질문을 만들면서 생각을 깊게 하게 됐고,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보면서 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도 알게 됐다."고 말한다. 이한솔 학생은 "성인이 되면 내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나 투표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10~15분 토론의 성공 비결

"토론에서 꼭 답을 내지는 않습니다. 대립형 토론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수용하길 어려워하지요. 진지한 대화를 하듯 그 안에서 생각을 표현하고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고 교사는 인문계 고교에서 가르치지만, 매 시간 10~15분 짧은 시간이라도 토론을 꼭 수업에 적용한다. 올해 첫 시도한 에르디아(ERDIA) 토론은 'ermst'와 'dialog'를 뜻하는 독일어 두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진지한 대화'란 뜻이다. 느낌을 말하고, 키워드로 표현한 후 질문을 만들어 쓰면서 토론하는 일련을 과정을 통해 사고의 확장을 돕는 토론 기법을 수업 내로 끌어 왔다.

그의 토론 특징 중 하나는 짧게 진행된다는 데 있다.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토론으로 수업 진도와 시간에 쫓기는 선생님들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전지에 토론의 개요를 작성하면서 하는 '전지토론', 테이블을 이동하며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 '월드카페 토론', 천사와 악마로 나뉘어 두 마음을 표현하는 '두마음 토론' 등을 수업에 적용해


05

진행하고 있다.

"토론을 하면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또한, 논술이나 서술형 문제에 쓰는 양이 늘고 내용도 한 단계 수준이 더 높아지지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고 교사는 아이들이 토론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인 발표하기를 과감히 없앴다. 대신, 수업이 끝날 때마다 '배·느·실(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을 적어 수업이 끝나면 제출하도록 했다.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평가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교과활동으로 기재해 '무엇을 배웠는가'에 주목했다. 아울러, 비주얼씽킹을 통해 학습주제를 조직화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그림과 글로 담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좋은 수업'을 만드는 수업모임

"18년차 교사지만 언제나 새로운 수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가지의 새로운 수업을 시도하고, 매 수업을 똑같이 진행하지 않다보니 1차시 수업 준비만 5시간이 걸릴 정도지요."

고 교사는 경기도토론연구회뿐 아니라 교내 수업동아리를 포함해 3개 모임의 회원이다. 수업 아이디어는 동료 교사와의 수업 나눔에서 얻었다고. 특히, 올해는 『맹자』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 고전에서 현대 정치의 의미를 찾아보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고교 교사라고 언제까지 수능 뒤에 숨을 건가?"를 자문하는 그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업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10분 토론

▶ 5WHY 기법을 활용한 주장하기

1) 영상을 본다.
2) 주제를 종이에 적는다.
3) 모둠원이 돌아가면서 질문과 이유를 적는다.
4) 생각은 모둠원 모두가 같이 하되, 적는 순서만 정하여 생각을 정리하여 적게 한다.
5) 질문에 나온 이유를 꼬리물어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이유를 또 생각하게 한다.
6) 5번의 WHY에 대한 5개의 WHY를 적은 후 결론을 쓴다.
7) 칠판에 붙여 함께 공유한다.

▶ Pro-Con 토론

모둠 내에 서로 반대되는 미니 모둠을 만들어 갈등 상황을 연출하고, 경험한 다음에 최종적인 모둠 결정을 하는 토론 방법

1) 모둠 내에 미니 모둠을 만들고, 주어진 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주장을 준비한다.
2) 미니 모둠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주장을 발표하게 한다.
3) 서로 입장을 바꿔 미니 모둠이 주장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
4) 모둠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 두마음 토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의 고민을 표면화하고 논리 전개 훈련을 하는 기초적인 토론 방법

1) 3인1조(1인: 악마, 1인: 판결자, 1인: 천사) 3명이 한 팀이 되어 악마, 판결자, 천사의 역할을 나눈다. 단, 4명이 한 모둠일 경우 1명은 계측이나 요약을 하며 함께 판정에 참여한다.
2) 논제가 주어지면 판결자는 양쪽을 30초씩 쳐다보며 말을 듣는다.
3) 악마와 천사는 판결자가 쳐다볼 때만 말해야 한다.
4) 3인 간에 서로 질문이나 토론을 할 수는 없다. 즉, 판결자만 말할 뿐 상대방에게 말하거나 질문할 수는 없다.
5) 양측이 한 번씩 30초간 '찬스'를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6) 판결자는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양측의 논리성만 판단해야 한다.
7) 4회의 발언이 끝나면 판결자가 판결과 소감을 말한다.

같이놀자교사연구회

수업을 살리는 '학습 놀이'로 교실 안팎 소통



"선생님, 오늘 국어시간에 뭐해요?" 어느 학교, 어느 학년에서나 들리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루함을 바탕으로 '오늘은 또 무슨 공부를 하게 될까?'하는 의미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즐거움을 바탕으로 '오늘은 또 무슨 재미있는 활동을 할까?'의 질문이다. '같이놀자교사연구회'는 학생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하며, 오늘 수업을 기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2014년 말 조직된 교사연구회이다. 인천-경기-서울지역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같은 고민을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교사연구회에서는 4월 초 그동안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살리는 놀이 레시피'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놀이가 가지는 힘은 다양하다. 신체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욕구 불만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놀이가 가진 핵심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발성에 바탕을 둔 놀이 활동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 '같이놀자교사연구회'는 이러한 기존 놀이의 장점을 살려 학습, 즉 수업과 연결할 수 있는 '학습 놀이'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놀이를 통하여 사회화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에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학습 놀이를 개발하였다. 또한 스스로의 인지적 학습이 향상되면 사고력, 창의력, 추리력 등의 지적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학습 놀이를 개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휘를 배우고 상호작용의 의사소통능력이 신장되면서 언어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가위, 바위, 보와 같은 단순한 놀이 활동도 교육적 의미를 갖게 되면 즐거움과 함께 큰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같이놀자교사연구회'는 앞으로 교육과정을 더욱 분석하여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 개인 역량에 크게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놀이, 학생들이 기다리는 즐거운 놀이 수업을 위한 '학습 놀이'를 개발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임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정영찬 대표(인천간재울초 교사)는 "큰 자료와 준비 없이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할 수 있는 학습 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이가 가지는 기본 가치에 학습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소를 가미시켜 교실현장에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놀이뿐만 아니라 독서교육, 미술, 음악, 진로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고 말했다.

글_ **유철민** 명예기자(인천신현초 교사)



지역 : 인천 및 경기, 서울지역
대상 : 같이하는 교육 가치 있는 교육을 꿈꾸는 모든 분,
학습 놀이로 함께 하시고 싶은 모든 분
대표 : 정영찬(인천간재울초 교사, 032-568-9161)
jyc1630@nate.com

경기도중등중국어교육연구회

중국어 교사의 등대지기



현재 경기도에는 700여 명의 중국어 교사가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같은 학교에 거의 단 한 명의 중국어 교사가 근무하며 수업과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어 교사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12월12일 부천 중흥고에서 태동한 경기도중등중국어교육연구회(이하 경중연)은 명실 공히 중국어교사의 등대지기로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경중연의 회장을 맡고 있는 용호고 이종민 교감이 1998년에 경중연을 처음 만들고,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후배 중국어 교사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변함없이 봉사해 오고 있는 경중연의 대선배이다.

경중연에서는 2016년에도 경기도내 신규 중국어 교사들을 위한 '선후배 교사간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1대 1'로 만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명의 신규 교사와 함께 멘토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후배 교사들의 수업 중에 생기는 고충을 듣고 조언해주며, 평가 문항 제작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효율성 있는 문항 제작, 무결점 문항이 출제될 수 있도록 선배 교사가 후배들을 돕고 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7월에도 30시간의 '중국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여름방학 직무연수'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직무연수는 중국어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흥미 있는 주제로 구성될 것이다. 삼국지 활용 수업 방법, 독서연계 수업, 중국 요리 실습, 중국 음악 실습, 젠즈[剪紙] 및 중국지도 및 기념일을 소재로 한 수업 기법, 프로젝트 중국어수업, 타이완과 홍콩 여행지를 활용한 수업 방법, 세계시민교육 등이 연수의 주요 테마이다. 연수 참가를 희망하는 중국어 교사는 경기도교육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미리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2016년 7월 9일부터 방학 전 토요일과 방학 직후에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용호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이 밖에도 경중연의 큰 자랑거리 중의 하나는 중국어 교사들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평가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학술지 ≪한어교학(漢語敎學)≫을 발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창간호가 나온 뒤 매년 1회 발간되어 2015년에는 제16호가 발행되었으며, 올해에는 17호 제작을 위한 원고를 모집 중이다.

경중연 이종민 회장은 "경중연의 정신을 그 옛날 공자(孔子)의 말을 빌어 표현하자면 '三人行必有我師焉'일 것입니다. 함께 하는 중국어 교사들의 행복한 동행(同行)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행복한 중국어 교육을 경중연과 함께 경기도에서, 아니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열어가기를 바랍니다."라고 전국의 모든 중국어 교사들에게 행복 인사를 전한다.

글_ **최병권** 명예기자(의왕고 교사)



지역 : 경기도
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중국어교사
대표 : 이종민 회장(용호고 교감)
연수문의 : 전소영 총무
(봉담고 교사 zhaoying@hanmail.net)

차승민 창원 광려초등학교 교사

2천편 분석해 60편 지도안 구성
영화로 소통하는 '영화교육전문가'



01

16년 전 한 편의 영화는 한 교사를 바꿔 놨다. 1988년 개봉한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빅(big)'. 어른이 되길 희망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보며 교사와 아이들은 함께 웃고 울었다. 교실 안에서 마음을 열고 어느 때보다 집중하던 아이들의 모습은 교사의 머릿속을 내내 맴돌았다. 그 이후로 그는 시중의 모든 영화를 섭렵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여 년간 보고 분석한 영화만 2천여 편. 그 중 교육과정에 맞는 150여 편의 영화는 수업 안으로 들여왔다. 영화교육 전문가 차승민(44) 경남 창원 광려초 교사의 얘기다.

"어느 날 교실 복도 유리가 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항상 말썽을 부리던 아이가 있어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다그치게 됐지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마음도 모르고… 교사로서 절 되돌아보게 됐지요. 그때 우연히 아이들과 영화를 봤습니다. 마음을 열고 울고 웃는 모습을 봤지요."

차 교사는 '영화'로 숨은 아이들의 마음을 봤다고 했다.

영화로 아이들의 숨은 마음을 보다

아이들은 차 교사의 수업을 '희귀한 수업'이라 부른다. 연간 20여 편의 영화를 함께 감상하는 데, 영화에 푹 빠져있다 보면 수업 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 이때 차 교사는 아이들에게 꼭 네 가지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왜 인상 깊었나요?" "그 장면 외에 또 어떤 장면이 인상적인가요?" "자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이들은 주인공의 삶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봤다. 고아인 올리버의 힘든 여정이 닮긴 「올리버 트위스트」를 본 후 아이들은 '난 행복한 아이 같다.', '행복은 가까이 있고 소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껴라'를 깨달았다고 했다.



02

01 아이들이 표현한 '차승민 교사 사용설명서'

02 차 교사는 영화로 아이들의 숨은 마음을 읽는다고 말한다.

03 5년 전부터 시작한 '얼렁뚱땅 미술교실'은 아이들이 맘껏 그려보는 미술수업이다. 교실에 도화지를 가득 쌓아 놓고 마음대로 그리는 수업에서 못 그린 그림은 없다.

04 담임반 아이들과 활짝 웃고 있는 차승민 교사



03



04

"영화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입니다.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아이들은 어느 덧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영화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자기를 되돌아보지요. 아이들이 영화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볼 영화를 고르는 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선 제1원칙은 아이들에게 재미있어야 하고, 밝고 긍정적인 영화여야 한다. 또한 수업에 적용하기 좋은 2시간 이내의 영화 중, 아이들이 등장인물로 나와야 공감대가 형성된다. 월트디즈니 시리즈, 「장강7호」, 「소림축구」, 「원령공주(모노노케 히메)」, 「아이언 자이언트」, 「인크레더블」은 아이들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영화목록 1순위이다.

인터넷 카페, 팟캐스트, 책 발행…

차 교사는 수업 준비도 남다르다. 교육과정 핵심성취 기준을 분석해 12개 수업 주제를 정하고, 각 5편씩 총 60편의 영화수업 지도안도 세밀하게 구성했다. 그간 모아 온 영화 DVD와 CD만 5천여 장. 10TB에 달하는 하드에는 수백편의 영화도 담겨 있다. 1년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제를 보내면서 영화논술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분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노하우는 '차승민 교사의 초등영화교실(http://cafe.naver.com/chasm98)'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전국의 동료 교사들과 공유한다.

올해는 아이들과 함께 화해공감 수업과 문화해결 수업도 시작했다. 영화수업에서 배운 자기결정력으로 교실 내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반 아이들이 사건을 조정하는 데, 영화수업 이후 대부분의 일은 쌍방과실로 결론이 나고 있다.

"영화수업 이후 교내 다툼이 줄고, 학생들의 자기결정력이 커졌습니다.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꾸준한 학습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요. 처음에 우려하던 학부모나 학교 관리자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업 활동을 지지해 주고 계세요. 좋은 영화를 보는 건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영화교육 저변을 넓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엄성수, 이해중 교사와 함께 팟캐스트 '영화, 교육을 만나다'를 진행하며 10여 년간 해 온 영화교육 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올 7월에는 그의 네 번째 저서인 『마음으로 읽는 영화』 출간도 앞두고 있다.

"영화든 음악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사가 어떤 의지로 수업에 적용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교사도 아이들도 즐거운 일을 찾아야 합니다."

차승민 교사가 추천하는 수업영화

나를 찾는 영화
- 슈렉
- 쿵푸팬더
- 겨울 왕국
- 인사이드 아웃
- 원 챈스



아이를 성장시키는 영화
- 샬롯의 거미줄
- 카
- 빅
- 집으로
- 새미의 어드벤처



기획

꿈과 끼를 찾아가는 행복로드맵, 진로교육 5개년 계획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진로교육이 교육 현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움트는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발맞춰 지난 달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16~'20)」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에서는 초등에서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 설계와 범사회적 진로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 포함돼 있어 더욱 주목된다.





진로교육은 행복한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꿈꾸는 곳'으로 학교는 변화 중

진로교육 내실화에 전방위 지원 팍팍

꿈과 끼 살리는 행복한 진로 설계 기반 마련

진로교육은 행복한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 묘사될 수 있지만 매우 빠른 변화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를 상당기간 살아가야 할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켜야할까?

글_ **김봉환**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진로교육 또한 예외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의 싹이 자라서 이제 튼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지역사회도 직업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청소년 진로교육을 실천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진로프로그램과 진로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진로대안을 탐색하도록 조력해도 집에 돌아가면 엄마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오갔다. 그만큼 가정은 자녀의 진로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녀를 지켜만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향력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일방적인 욕심에 의해서 왜곡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결국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와 시각을 갖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등을 통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많은 측면에서 발전지향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의 고민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성적'과 '진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들의 걱정도 자녀의 성적과 상급학교 진학으로 집약되고 있다. 많은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가 성적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마음 편하게 대화가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 반면 진로문제는 각색만 잘하면 자녀와 나누는 대화 주제로 성적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다. 부모가 자녀의 진로문제를 현명하게 이끌어서 자녀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진로목표를 간직하도록 도와주면 어느 순간 자녀 스스로 그 목표를 향해 가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학습동기로 작용하여 학업성적도 향상되는 사례를 만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 묘사될 수 있지만 매우 빠른 변화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를 상당기간 살아가야 할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켜야할까? 정답은 스스로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결국 자녀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에게는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자녀를 지켜보는 것이 불안하고 안쓰럽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마도 자유학기제는 이와 같은 생각과 경험의 첫발을 내딛게 한다는 뜻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목표인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는 말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부모가 진로지도 시 유의해야 할 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진로문제를 지도할 경우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부모는 자녀의 진로를 선택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녀가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결국 선택은 자녀가 하되 후회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을 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부모는 자녀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자녀의 능력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성적이 수직급상승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고, 학원을 보내서 성적을 어디까지 올리면 어느 대학까지는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도 섣부른 기대일 수 있다. 오히려 자녀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러한 특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셋째, 부모는 자녀에게 대학에 가지 않고도 원한다면 그와 동등한 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더라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다. 특히 요즈음은 '선취업·후진학'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재직자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취업한 후 근로자의 신분으로 산업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내대학, 사이버대학,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 학점은행제도 등을 이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길 등 다양한 통로를 부모가 알아두고 상황에 따라서 자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넷째, 부모 혼자의 힘만으로는 자녀의 진로문제를 제대로 지도하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서 부모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인근에 있는 진로진학정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고용센터 등은 매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들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잘 파악한 후, 자녀들에게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 수도 있고, 진로심리검사를 받은 후 전문가를 통해서 검사해석 상담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최신의 다양한 진로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아울러 자녀의 진로지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예: 커리어넷, 워크넷)에 탑재된 정보와 도구들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사실 부모는 진로지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에 틀림이 없다. 단지 자녀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극의 단서를 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 자신이 본인의 생애진로(일, 배움, 여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녀 진로문제를 잘 지도하고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인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자녀들 간의 관계가 원활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만 가능하다. 결국 행복한 가정이 자녀 진로교육의 튼실한 토양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꿈꾸는 곳’으로 학교는 변화 중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중3 은총이는 진로상담노트 ‘자화상’에 진로고민을 적었다. 곧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노트에는 경찰이 되는 방법과 준비에 필요한 자료가 스크랩되고 있고, 선생님의 응원과 함께 진심어린 조언이 함께 적혀 있었다.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꿈을 다양하게 탐색해 보렴.’*

대전 중리중(교장 윤병민) 학생들은 모두 자신만의 ‘자화상’이 있다. 교내 선생님 누구에게나 진로상담을 요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facebook, E-mail 등을 통한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입시를 위해 스펙을 만드는 진로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진로교육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담겨 있지요.”

박재조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말이다. 학기 초 3월에는 전교생이 진로심리검사로 한 해를 시작한다. 검사 결과는 유형별 학교진로상담으로 이어지는데 아이들은 자신을 이해하는 일부터 ‘꿈 찾기’를 시작한다.

대전 중리중, 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축

진로체험을 돕는 건 지역사회다. 관내 대학뿐 아니라 법원, 복지관, 예술원 등 40여 개 기관이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화이글스의 야구장데이트,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청댐 투어를 비롯해 비즈공예, 원예, 오페라 등 평소 아이들이 접하기 힘든 진로체험도 이뤄진다.

무엇보다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인기다. 희망조사에 따라 구성된 30개 동아리는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연계된다. ‘해피링크 기자단’은 중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하며 마을 신문 제작, 청소년 위기행동 예방캠페인, 청소년 안전 쉼터 만들기 등에 참여했다. 국악 오케스트라단 동아리는 주2회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하며 지역 내 공연과 학교 축제를 뜨겁게 달궜다. 박재조 교사는 “꿈을 가지라는 부담보다는 마음껏 경험하고 꿈꿀 수 있는 경험의 장이야 말로 참 진로”라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모든 자원을 연결시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말한다.



대전 중리중 대전일보사 진로체험활동

진로탐색을 돕는 건 이 뿐만이 아니다. 고입진학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정보가 망라된 진로정보포털을 학교홈페이지에 구축하고, 매주 1회 ‘중리진로진학정보지’를 전교생에게 배부한다. 교내 경시대회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나의 꿈 발표 대회’, ‘자기소개서 경진대회’ 등으로 펼쳐진다. 특히, 올해 2학기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가 도입됨에 따라 진로교육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예정. 학생·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의 ‘참 진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덕이고, 자기주도 진로활동 효과 톡톡

경기 고양 덕이고(교장 이기철)는 자기주도 진로활동으로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영역을 정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활동사진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진로 성장과정으로 기재된다. 최은주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교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역량이나 지적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 실천, 결과보고까지 본인이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을 통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한다.



대전 중리중 한남대 멘토링

친구 간 도움을 주고받도록 한 또래중조(仲調·Peer Mediation)도 눈길을 끈다. 또래중조는 도움을 주고받는 학생이 결연을 맺고, 교과 이외의 활동을 계획서를 통해 실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게 된다.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의 사소한 일부터 힘든 일까지 도우며 우정을 쌓고, 봉사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

다양한 진로선택에 따른 전문적이고 융합적인 활동은 인근 학교와 힘을 합쳤다. ‘비교문화’, ‘화학실험’, ‘영화 감상과 비평’, ‘문예 창작 전공 실기’ 등 전문적이고 융합적인 활동을 위한 클러스터 교과를 개설했다. 이은진 학생은 “대학 교수님께 비교문화를 배우며 교실 속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마당을 나온 암탉」과 「완득이」 영화를 활용해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진정한 배려와 공존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다.”고 말한다.

한편, 같은 관심사를 지닌 학생들은 참인재상과 동아리활동을 통해 협력적인 진로활동이 이뤄진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미결정원인을 분석해 진로설계를 잘 도울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진학상담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아울러, 20시간 연수를 받은 학부모 진로교육지원단도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든든한 ‘길잡이’다.

특히, 올해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오후 교과 수업과 창체 활동을 진로와 연계하고 대학 학과 탐방 등 진로체험이 이뤄진다. 최은주 교사는 “진로지도는 학생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문원중, 자유학기제 동아리 ‘나도, 여행작가’



경기도 성남의 성남문원중학교(교장 이근춘)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여행작가 책을 출간했다.

책 이름은 『나도, 여행 작가』. 지난 2학기(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자유학기제 동아리 프로그램 ‘나도 여행 작가’는 ‘우리 동네 성남’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연필로 골목 여지저기를 스케치하며 동네 곳곳을 탐색하는 활동을 했다.

동아리 ‘나도 여행 작가’는 여행을 통해 아이들이 풍부한 상상력과 인문학적 감성을 키우고, 여행작가라는 직업도 체험해 볼 수 있게 하고자 이 학교 국어과 김재우 교사(여행작가)가 아이들을 모아 조직했다. ‘더 넓은 곳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사는 동네부터 제대로 잘 알자’가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였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1학년 학생 9명은, 한 학기 동안 학교 주변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동안 알지 못했던 고장의 매력과 새로운 면면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집에는 동네 이곳저곳의 사진과 사진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 학생 인터뷰, 성남을 주제로 한 마인드맵 등이 수록돼 있다. 중학교 1학년의 시선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한 애정과 솔직한 느낌도 사진집 곳곳에 배어 있다.

동아리의 지도교사로 참여한 김재우 교사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함께 ‘나도 여행작가’ 동아리를 꾸려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며 “학생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이 높아지고, 동시에 진로 탐색의 기회도 갖게 되어서 기쁘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 사진집은 성남형 예산(빛깔있는 학교운영 프로그램)과 자유학기제 동아리 예산, 교육전문기업 비상교육이 참여해 자유학기제를 응원하는 각 주체가 힘을 모아 제작됐다.

진로교육 내실화에 전방위 지원 팍팍


01




02


03


04



05

01 03 찾아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진로체험
02 04 05 수원청소년희망등대센터 직업체험

"웹툰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어요. 직업으로서 웹툰 작가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요."

지난 5월 18일 경기 파주 봉일천중 2학년 교실. 이종민 웹툰 작가는 직업 멘토로 자유학기 학생들을 만났다. "인물 드로잉을 잡으려면 인체 비율을 알면 좋다."는 자신만의 드로잉 기법부터 웹툰 작가의 직업정보와 경험담을 진솔하게 얘기하자 아이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웹툰을 좋아했는데, 작가로서 직업도 매력적이다."며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은 활짝 웃었다.

이날 학생들은 평소 만나기 힘든 댄서, 래퍼, 크리에이터 등 직업 멘토 9명을 만났다. 만나고 싶은 직업 희망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직업들이다. 권태이 봉일천중 교사는 "수도권이지만 읍·리 지역에 소재해 접하기 쉽지 않은 직업"이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진솔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한다.

'찾아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인기

올해부터 본격 시작하는 '찾아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이하 진로체험버스)'가 자유학기를 맞은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그간 ICT기반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등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진로체험버스로 인해 활동중심의 체험이 폭넓게 가능해진 것. 진로체험버스는 농산어촌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직업 멘토와 지원 인력의 이동을 지원하고, 체험 기자재 등을 학교로 들여온다. 전국 농산어촌(도서벽지) 지역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1,206개교가 이용 대상이다. 김성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 연구원은 "팝아티스트, 프로게이머, 특수분장사 등을 초청해 학생 1인당 2개의 직업체험을 지원한다."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미래지향적인 체험과 실험 실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연계한 신문사 일일기자 프로그램, 군산대 LINC 사업단·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진로체험버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학생들이 만드는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맞춤형 진로체험버스를 운영해 인기를 모았다.

수원시, '수원청소년희망등대센터' 신설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도 발벗고 나섰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시비 10억여 원을 들여 청소년 진로지원전담기구를 지난해 5월 신설했다. 시 출연기관인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산하 소속으로 신설된 '수원청소년희망등대센터'는 청소년 진로지원과 기존 지역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수원시 관내 202개소 일터를 진로체험처로 발굴했다. 센터 내 10명의 인력이 직접 발로 뛰며 직업체험처의 문을 두드리고, 학교와 연계했다. 아울러, 일일 멘토 교육과 매뉴얼을 제작하는 일도 도맡았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직종을 직접 경험하는 일이었다. 문화재연구라 하면 막연하게 박물관을 생각하는데,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은 직접 현장에 가서 발굴도 해보고, 복원하는 것도 체험해 보는 등 색다르고, 접해보지 못한 활동으로 이뤄졌다. 문화재보존과학자, 고고학자 등의 직종에 대해 몰랐던 부분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함자영 수원청소년희망등대센터 창의진로부장은 "진로체험처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직종과 관련해 청소년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늘 학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수요조사를 거쳐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초~고교 'One-Stop' 진로진학 지원

지난 12월부터는 직업체험처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희망드림 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는 자유학기제를 시작하는 중학교 대상으로, 학급당 최대 2회까지 지원해 780회가 운영될 예정. 진로직업축제 '희망스토리'와 수원청소년진로박람회 '희망드림'을 통해 진로상담과 미래유망직업을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를 위한 진로코칭과 진로 세미나, 청소년 직업진로 탐색 특강 등이 다채롭게 운영된다. 특히, 학부모와 함께 상담할 수 있는 1:1 컨설팅은 지난해만 747건이 이뤄지는 등 참여도가 매우 높다. 지난 해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학부모만 2만6천여 명. 학생들은 "나의 진로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는 중학교뿐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도 넓혀가고 있다. 초등학생 대상 '꿈나무 진로진학 일일캠프'는 당초 6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으나 인기가 높아 21개교로 확대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관내 전 초등학교 98개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함자영 창의진로부장은 "앞으로 중학생 진로체험뿐 아니라 초등학생에게는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학생에게는 나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진학에 초점을 맞춰 질 높은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진학 지원의 'One-Stop'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센터, 지자체, 지역사회, 학교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청소년의 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꿈과 끼 살리는 행복한 진로 설계 기반 마련

글_ 문승태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과거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정년을 채우고 연금을 타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100세 평생학습시대에는 두세 개의 직업을 전직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보다는 단순히 성적만으로 학과를 선택한다거나 취업이 잘 되는 특정 전공학과에 쏠리는 현상 등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10년간 공학계열 대졸인력의 수요는 21만 5천명이 초과하고, 인문·사회·사범계열의 초과인력은 43만 8천명에 이르러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예측('15.12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교육법이 제정('15.6.22)되고, 올해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시점에서 거시적인 중장기 진로교육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체계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의성과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기 진로탐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은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 설계'를 비전으로 학습자에게는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역량을 신장하고, 학교에서는 내실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며, 사회에서는 국민의 행복한 삶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여 초등학교는 진로인식, 중학교는 진로탐색, 고등학교는 진로설계, 대학교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체계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였다. 진로교육 체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1)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초·중등학교의 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진로교육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해 학교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였다.

첫째,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여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도입·확산하려 한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란 진로교육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감이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진로 관련 과목[1]을 집중편성하거나, 일반교과와 연계하여 진로적 요소를 강조하는 수업을 운영한다거나, 창의적 체험활동[2] 중 진로활동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3]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발달단계와 진로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진로심리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진학상담을 위한 매뉴얼 등을 제작·보급한다.

둘째, 진로교육법 제9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로전담교사를 초·중등학교에 학교당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는 순회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상담 및 동아리활동 지도 등 진로교육 관련 교과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사대 교과목에 진로 관련 과목 신설을 검토하며, 학교관리자의 인식개선, 담임교사의 진로상담, 신규교원의 진로교육 이해 및 지원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현장에서 진로전담교사의 업무를 도와 줄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을 전·현직 전문직업인, 학부모, 자원봉사자, 퇴직시니어 등을 활용하여 전문인력풀로 구성하여 대폭 확대할 예정[4]이다.

2) 진로교육 대상 확대

이번 계획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대학생 등 진로교육 수혜대상을 확대하였다.

첫째,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진로상담(지도)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이들을 담당하는 교사의 진로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진로상담기법 등에 대한 연수 및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으로도 진로정보를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현재 200개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진로지도,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을 확대[5]할 계획이다.

둘째,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저학년(1~2학년) 때부터 진로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산업연계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도교수제'의 도입을 권장하여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상시 진로상담(지도)체제 구축을 유도하는 한편, 대학 내 취업지원, 진로교육·상담 기능을 연계·통합하여 학생들에게 창업·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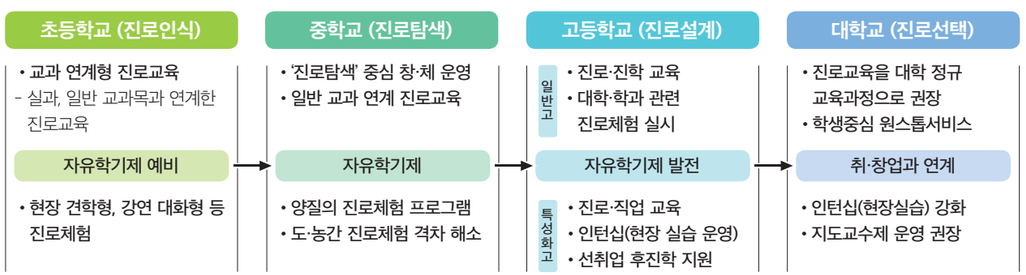
3) 진로체험 활성화

양질의 진로체험처를 확보하여 진로체험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첫째,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진로체험처를 제공하도록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외부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학과 민간기업의 진로체험처 제공도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진로체험처 제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의 체험처-학교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진로체험 시 사전 안전

[그림] 학교급별 진로교육 체계도



1) 초 : 실과, 중·고 : 진로와 직업(선택과목)
2) 창의적 체험활동 : 교과외(비교과) 활동으로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
3) 시범운영 : ('16) 연구학교 37교, 시범학교 37교, 협력학교 300교 → ('20) 시범학교 1,000교, 협력학교 2,000교)
4) 전문인력풀 : ('15) 654명→ ('20) 3천명 이상
5) 진로교육프로그램 수혜대상 : ('15) 3.4만 명 → ('20) 10만 명

교육과 '사전교육 - 체험활동 중 교육 - 사후교육'으로 이어지는 활동단계별 안전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양질의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하고, 교육기부를 통한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둘째, 가상창업을 제공하는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 VR(Virtual Reality)를 이용한 우주비행사나 항해사 등의 직업 체험 프로그램, 인공지능(AI) 관련 SW개발자, 로봇공학자, 헬스케어 종사자 등의 미래 직업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꿈을 찾고, 현장을 체험하는 지역특화벨트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15년 : 385교 → '20년 : 3,000교)을 운영하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영상 시스템을 구축('15년 1,392교→ '20년 : 3,500교)할 예정이다.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였다.

첫째, 교육부장관이 국가차원의 진로교육 정책지원 전담기관으로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조례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진로정보망을 개편하여 국가수준의 진로정보망 체계를 확대하고,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의 시스템을 연계·구축하여,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직업 관련 콘텐츠·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둘째, 진로선택에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 걸쳐 학부모가 가장 큰 영향[6]을 미치는 만큼, 학부모의 진로인식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자녀성장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기본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진로정보 소식지 '드림레터'[7], 팟캐스트 방송 '진로레시피'[8], 앱 '맘에 쏙 진로'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진로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와 같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대체하는 미래사회에서는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이며,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 준다. 올해 마련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진로교육법 제정과 더불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이 앞으로 헤쳐 나가야할 변화하는 사회에 자생력을 키우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룩한 성과와 변화들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5년 후가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대학이 이러한 일들을 전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등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자들이 힘을 합쳐 창의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비로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진로교육이 본격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6) 초 43.0%, 중 25.5%, 고 20.8%, 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7) 가정통신문 형태로 자녀의 진로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 학교급별 진로정보 제공
8) 진로 및 진학정보, 자녀상담, 직업 등의 진로정보 제공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제1차 계획과 이번 제2차 계획의 차이점은?

A 기존의 제1차 계획('10~'13)이 초·중·고 학생 중심 양적인 진로체험 기회 확대에 초점을 둔 반면, 제2차 계획은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설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부터 대학까지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범부처·지자체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진로교육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정책 대상	초·중·고	초·중·고·대
정책과제	3대 정책영역, 10개 정책과제	4대 정책영역, 8개 정책과제
주요 정책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공공기관의 진로체험기회 제공 의무화 및 안전하고 질 높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도입·확산
	-	(신설)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강화
	교육지원청을 '(가칭) 진로교육지원센터'로 지정·운영	진로교육 정책 지원 전담기관으로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 진로교육센터 운영
	-	(신설)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Q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란?

A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진로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되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특색 있게 운영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 진로활동의 비중 확대, 진로 관련 교과((초등) 실과, (중등) 진로와 직업)의 집중 편성 및 일반교과와 연계한 진로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의 다양한 진로활동으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Q 진로상담을 내실화하는 방안은?

A 진로상담을 내실화하기 위해 학생의 진로결정 및 활동 수준에 따라 개인 맞춤형 상담을 유형별로 우선 실시합니다. 아울러, 학생의 요구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지역진로교육센터, 대학, 박물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소속 상담원의 전문적인 진로상담을 제공합니다. 1:1 상담 및 심층상담 등의 온라인 상담도 병행하게 됩니다.

Q (가칭)진로체험 이력관리제란?

A 상위학년 진로체험과 진로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개인별 진로체험 이력관리카드를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17년 이력관리카드를 개발하고 그 이듬해부터 이력관리카드가 보급·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체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게 되며,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성장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진로역량을 배양하게 됩니다.

新시대를 여는 대학의 동반자

대학정책관

우리 대학은 바로 新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그 어느 기관보다도 높은 자율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매년 5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430여 개의 대학은 자율성 못지않게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큽니다. 대학정책관은 바로 대학에 대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서유미 대학정책관

지난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졌던 "창조경제"의 의미가 확 와 닿은 분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바로 新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그 어느 기관보다도 높은 자율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자율성이 있어야 창의성도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교육부에 대학정책실, 특히 대학정책관은 왜 있을까요?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어느 기관이든 잘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기본 제도는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조직인 가정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지 않나요? 하물며 매년 5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430여 개의 대학은 자율성 못지않게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큽니다. 대학정책관은 바로 대학에 대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학정책과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대학정책실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특정 과, 국을 넘어서는 고등교육의 큰 그림을 바로 대학정책과에서 그려냅니다. '고등교육 발전방안',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이름에서도 느껴지지요?

또 다른 중요한 업무는 국립대학 관련 제도 운영입니다. 예를 들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이원화된 국립대학의 회계제도를 개선, '대학회계' 제도를 도입해서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인 게 이 과에서 한 일이지요. 이 외에 국립대병원과 서울대·인천대 등 법인대학을 지원하는 것이나,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국립대학간 행정·회계 통합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 업무입니다. 조만간 '국립대학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과에서는 대학교원 인사, 학생 및 교수 정원 조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들 업무의 성격상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 쪽보다는 제도개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학들을 긴장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대학평가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과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대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작년 큰 이슈였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비롯하여, '국립대 법인 운영성과 평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등 대학이 공적인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지, 대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지 등 대학의 운영을 평가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더 나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평가과라고 해서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과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등을 운영하여 국립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WE-UP)'을 통해 공학에 꿈을 가지고 있는 여학도들을 지원하는 것도 이 과의 업무입니다.

교육부의 수많은 업무 중에서도,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는 바로 대학입시 아닐까요? **대입제도과**는 대학의 학생선발 관련 정책을 총괄합니다. 대학별 전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제도와 정책을 기획하고 대입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대입제도과가 합니다. 예컨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내실 있게 전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과의 또 다른 주요 업무는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입니다. 30여 일간 700여 명의 합숙을 통해 출제된 문제로 60여만 명의 수험생이 한 날 한 시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능 당일 출근시간 조정, 비행기 이착륙 시간 조정 등도 바로 대입제도과에서 민관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랍니다! 초·중등 교육의 종착이자 대학교육의 시작이고, 큰 영향력을 가진 업무인 만큼 많은 부담과 고민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경당', 고려의 '12공도', 조선의 '서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학(私學)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학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립대학제도과는 400여 개 사립대학의 설립·운영·폐지 및 사립대학의 법인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팀"을 별도로 운영해서 사립학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예산·회계, 재산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업무도 합니다.

학령인구 급감의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와중에 학문의 융·복합이 강조되고 지식의 주기가 급속히 짧아지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들은 혁신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학정책관은 이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닦아드리는, 대학의 동반자입니다.

대한민국 행복 열쇠

교육개혁



국민행복을 위한 교육개혁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교육부는 6대 교육개혁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즉 ①자유학기제 확산 ②공교육정상화 추진 ③지방교육재정 개혁 ④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⑤일학습병행제 확산 ⑥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등 6대 교육개혁 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산업과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유학기제 확산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세대인 중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며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 계기를 제공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3,213개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이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고교 1학년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도입, 시범학교 37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부총리·차관이 직접 학교 및 진로체험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추진

학교공부만으로도 평가·입시 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선행출제 관행 근절을 위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비정상적 학원운영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학원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1차, 2~3월)하고,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제한을 완화하여 사교육수요를 일부 흡수하기 위한 「공교육정상화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2015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습자(학생) 중심의 교과서 개발과 교원 대상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능체제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는데, 수능영어 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18학년도)하고, 학교수업만 충실히 이수하더라도 수능시험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에는 '대입정보포털(adiga.kr)'을 구축하여 학생 스스로 적성에 맞는 학과·대학을 탐색하고 전형정보를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내 진학상담 체제를 마련하였다.

지방교육재정 개혁

지난해 5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등 재원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교원 정원배정 기준 변경 등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12월에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개통하여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테마별 분석·설명 자료를 게시하여 일반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창조경제 시대로의 전환 등 사회·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고등교육과 사회수요 간 인력 미스매치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학의 교육체제를 개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을 신설하여 지난 5월 총21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에는 올해부터 '18년까지 3년간, 대학의 자발적인 양적·질적 구조개혁을 지원('16년 예산 2,012억 원)하며, 재정지원 종료 후 5년간 사후 성과관리를 진행하여 구조개혁 노력이 대학의 체질 개선으로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 내 주문식·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회맞춤형학과'를 지원하여 대학-사회 간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 확산

교육부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통해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있다. 우선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직무중심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전문대학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2017년까지 100개교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년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와 산업현장을 오가는 직업교육을 실시('15. 9교→'16. 60교)하고, 고교-전문대 총 5년간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을 신설하여 현재 16개 사업단(특성화고-전문대)을 지원하고 있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교육부는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통해 고졸 취업 문화를 확산하고,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분야별 관련 정부부처가 성장동력 산업,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농생명자원 등 경쟁력있는 분야로 마이스터고를 확대 지정할 계획('16년까지 총 50교)이다. 또한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학교 단계에서는 '취업희망자 특성화고 진학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일반고 진학 후 진로 변경 등으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도 확대하였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업무협약도 활발히 체결하고 있다.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운다
일학습병행제 확산

○○○ / 참여기업 대표

"취업난, 취업난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도, 어렵게 구해도 금세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젊은 사람이 없는데 학생들이 와서 같이 근무하니 회사에 생기도 돌고, 이렇게 2년간 가르치면 졸업 후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 장기근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 기업현장교사

"우리 회사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면서 심화이론 교육 그리고 현장실습까지 우리 기업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사의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미래의 명장을 내 손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 경기도 ○○ 공업고 학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으로 착실하게 배우고 익혀서 대한민국 최고 기술명장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회사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서 나중에 직장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창의적인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며 우수한 기술·기능인재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을 추진하여 직무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고졸 우수 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중심에서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고졸 기술·기능인재 양성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란, 독일·스위스에서 발전한 도제교육(apprenticeship)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즉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직업교육형태를 말한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담당하고, 기업에서는 기업현장 교사로 지정된 숙련기술자가 학생들에게 기업현장 직무와 연계된 전문 심화실습을 맡는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에는 9개, 2015년에는 51개의 특성화고를 선정하여 '16년 3월부터 총60개 학교(약 780개 기업, 약 2,800명의 학생 참여)에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실시하며, 이들 학교는 참여기업과 함께 2년간의 교육과정을 함께 편성하여 운영한다. 기업이 인력양성을 위해 단순히 지원하고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와 함께 필요한 교육과정을 직접 편성하고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에 대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도제교육 성과를 조기에 확산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60개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우수 사례를 도출하고, 2017년도는 기존 공업계열 외에 IT, 서비스 계열까지 적용범위를 넓혀 203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제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특성화고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 운영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은 고등학교 3년 또는 전문대학 2년의 단기 교육과정이 아닌, 기업이 참여하는 5년의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춘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신개념 산학연계 통합교육과정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5년 7월 인재양성 분야에 따라 총 16개 사업단(기반기술 11교, 정보통신 3교, 유망서비스 2교)을 선정했고, 사업단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고등학교와 기업이 연계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5년간 NCS기반의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유니테크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6년에는 16개 사업단을 집중 지원하여 다양한 우수 사례를 도출하고, 사업단별 취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신규기업 발굴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통합교육과정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대학·전문대의 현장실습도 확대한다. 취업과 연계된 채용약정기반 현장실습학기제 및 장기현장실습 시범 운영·확산을 추진한다.

전문대에서는 지난해 3월 시범대학 5교를 선정해 기업과 전문대가 채용약정 체결한 후, 한 학기를 학업과 병행하여 기업에서 실습하는 '채용약정기반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4년제 대학에서는 지난해 8월 시범대학 5교를 선정해 3~4학년이 최소 12주 이상의 대학 교육과정 일부를 산업체에서 이수하는 장기현장실습제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장기현장실습제 참여 기업에는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모범기업 인증 마크 등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대학생들이 '열정페이'라는 미명 하에 불공정한 노동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대학의 실습 참여 학생 상해보험 가입, 실질적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학생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하였다. 또한 오는 8월경 대학생 현장실습 매뉴얼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15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현장실습 우수 시범대학을 확대 지정('15년 5교 → '16년 10교)하고, 지역전략 산업 연계, 인문·사회계열 취업지원 등 우수 사례를 확산한다. 특히 LINC 참여 대학-기업 간 실시하던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기업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산학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능력중심사회 구현



교육부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통해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새롭게 했다. 올해부터 모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 NCS를 기반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을 개편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15.9월)하고, 교원연수(교육과정 이해 연수(15,589명), 핵심요원 양성(2,076명), 실무과목 담당교원 역량강화(2,518명)), 학교컨설팅(583교), 수업연구회 지원(151팀) 등을 통해 NCS 기반 교육과정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16년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NCS 기반 교육과정이 적용 됩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시기

- ~2015: 시범적용 (3개학교)
- 2016~2017: 우선 적용 (실무과목)
- 2018~: 완전 적용 (공통·기초·실무과목)

NCS? 그것이 무엇인가요?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한 것으로, 쉽게 말해 업무능력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헤어미용 분야와 같은 NCS는 전 직업 분야에 걸쳐 847개가 있습니다.

Q NCS는 누가 만드나요?

NCS는 산업계가 만듭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 기술 · 소양 등의 직무능력을 도출합니다.

Q NCS는 왜 사용하는 건가요?

NCS는 학교와 일자리를 가깝게 만들고자 사용합니다. NCS 활용을 통해서 학교에서부터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취직한 이후에 교육받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NCS로 새로워진 학교의 모습



공부목적이 분명해집니다!

- NCS를 통해 진로목표가 분명해 집니다.
- 소프트웨어개발자, 한식조리사 등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수업이 바뀝니다!

-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배웁니다.
-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대로 공부하게 됩니다

시험이 바뀝니다!

- 필기시험보다는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실제적인 능력을 평가**합니다.
-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업무수행 단계와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학생부가(학교생활기록부) 바뀝니다!

- **일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능력이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의 능력은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대학입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글_ 안연근
잠실여고 교사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작년에 비해 큰 변화가 세 개나 있다. 우선 한국사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한국사는 대입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대학들의 한국사 반영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올해 수능! 무엇이 변하였는가?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수시모집에서 한국사는 대부분 3~4등급까지 수능 최저학력을 설정하였다. 정시모집에서도 3~4등급까지는 만점이고, 그 이후로는 감점 폭도 매우 작다.

또한 2017학년도 수능에서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전년도 상대평가에 비해 상위 등급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작년 수능 한국사 원점수 기준 대비 충족률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1등급의 원점수 컷이 만점인 50점으로 10.47%였다. 이를 2017학년도 수능 1등급 절대평가 기준인 원점수 40점으로 환원하면 그 충족률이 무려 38%를 상회한다. 서울대에서 만점으로 인정하는 3등급의 원점수 30점 충족자는 50%였다.

한국사 절대평가 해당 당사자인 올해 고3 학생들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도 한국사 1등급은 10.6%(49,613명), 2등급 누적 비율은 20.8%(48,022명), 3등급 누적비율은 34.3%(63,440명), 4등급 누적비율은 50.5%(75,669명)이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만점으로 인정하는 3~4등급 충족률이 응시자의 1/3 이상~절반 이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과 핵심 내용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수험생들은 한국사 공부에 부담을 갖지 말고 필수 응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표1] 주요 대학 2017학년도 한국사 반영 방법

구분		수시	정시								
		최저학력 기준	등급별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서울대	전모집 단위	응시 여부	0			-0.4	-0.8	-1.2	-1.6	-2.0	-2.4
고려대 (서울)	인문계	3등급 이내	10			9.8	9.6	9.4	9.2	9.0	8.0
	자연계	4등급 이내	10				9.8	9.6	9.4	9.2	8.0
서강대	인문계	4등급 이내	10			9.6	9.2	8.8	8.4	8.0	7.6
	자연계	4등급 이내	10				9.6	9.2	8.8	8.4	8.0
성균관대	전모집 단위	4등급 이내	10				9	8	7	6	5
연세대 (서울)	인문계	3등급 이내	10			9.8	9.6	9.4	9.2	9.0	8.0
	자연계	4등급 이내	10				9.8	9.6	9.4	9.2	9.0
중앙대 (서울)	전모집 단위	4등급 이내	10				9.8	9.6	9.4	9	8
한국외대 (서울)	전모집 단위	4등급 이내	10			9.8	9.6	9.4	9.2	9.0	8.0
홍익대 (서울)	전모집 단위	4등급 이내	0			-0.05	-0.1	-0.15	-0.2	-0.25	-0.3

두 번째 변화는 수능 국어영역이다. 전년도에는 A/B 수준별 응시였다. 인문·예체능계열 학생들은 주로 B형, 자연계열 학생들은 A형을 응시하였다. 그러나 2017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 교과의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과목에서 출제하는데, 계열 구분 없이 통합하여 응시한다.

다만, 공통 시험으로 치러지는 국어영역은, 문·이과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게 출제한다는 방침을 평가원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 막연한 불안감 없이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변화는 수능 수학영역이다. 전년도 수학 A/B 수준별에서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학 나/가 형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게 아니라,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뀌었다. 인문계열 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전년도의 수학 A형은 수학Ⅰ·미적분과 통계, 자연계열 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B형은 수학Ⅰ·수학Ⅱ·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 과목에서 출제하였다.

그러나 올해 수학 나형(인문계열 학생이 주로 응시)은 수학Ⅱ·미적분·확률과 통계 과목, 수학 가형(자연계열 학생이 주로 응시)은 미적분Ⅱ·확률과 통계·기하와 벡터 과목에서 출제한다. 수학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으로 볼 때 실질적인 학습량은 감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제범위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 올해에는 한국사가 독립됨에 따라 사탐의 선택(2개) 과목이 10개 과목에서 9개 과목으로 줄었다. 시험 시간도 작년까지는 4개 영역을 볼 경우 15시 52분에 마쳤으나(제2외국어 응시자는 17시) 올해에는 한국사가 필수 응시로 지정됨에 따라 40분 연장된 16시 32분(제2외국어 응시자는 17시 40분)에 끝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수능 공부는 어떻게?

금년 수능 출제 원칙에서 작년과 바뀌지 않는 점은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점이다. 연계 비율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출제되므로 학원의 교재 보다는 교과서와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이다.

수능 성적은 수시모집에서도 중요하다. 중상위권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충족 영역을 인문계의 경우 국어와 사탐으로 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수학과 영어를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사회탐구는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 두 과목을 요구하고 있다. 한 과목당 문항 수도 20문항으로 적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최저학력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국어 과목은 이해력과 사고력을 묻고, 지문의 주관적 해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량과 비례하지 않는다.

차라리 정답이 확실한 수학을 택하여 노력을 확실히 하면 수능 최저학력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를 택하여 단어 숙어 등을 열심히 외우고 대비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시모집 수능 대비는 4개의 수능 영역을 공부해야 하겠지만, 힘에 부친 학생은 전략적으로 3개 정도만 선택과 집중을 해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

내년에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수능의 변별력은 다소 낮아질 것이다. [표2]에서 영어영역 절대평가 대상인 현 고2 학생과 상대평가를 하는 고3 학생들의 상위 등급 충족 누적 비율을 비교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현 고2 학생들의 2등급(원점수 80점 이상)까지의 누적 비율이 고3의 2배 이상이다.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인원은 크게 줄고 수시모집 인원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재 고3 학생들은 이러한 대입 흐름을 이해하여 금년에 합격하겠다는 결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표2] 2016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영역 등급 비율 비교

현재 학년	만점	1등급	2등급
2학년	의미 없음	12.89%(43,138명)	23.08%(77,251명)
3학년	13,084명	5.79% (27,137명)	11.53%(54,054명)

*외부필자 원고는 교육부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된 입시를 위한 준비 전략



글_ 김혜남
서울 문일고등학교 진학부장

수시모집은 입시의 대세이자 중심이다.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75%를 넘어 2018입시에서는 고려대와 동국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2배로 증가했다. 수시는 복잡한 전형 때문에 학생부 관리를 비롯하여 대입제도를 숙지해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대비할 수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끼와 경험을 파악하여 적응하는 것이 합격자를 많이 낼 수 있는 발 빠른 방법이다. 수능의 경쟁력이 약하지만 수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합격률을 높이는 지역들이 있는데 학교와 선생님들의 노력이 없이는 맺어질 수 없는 결과다.

수치의 속내를 살펴봐야

외형적인 선발인원과 속내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잘못 인식하여 일반화된 통계의 오류에 파묻히면 진학방향이 오도될 수 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 가장 많은 38.4%를 선발하지만, 상위 15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12.5%밖에 안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전체적으로 18.5%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상위 15개 대학은 40%를 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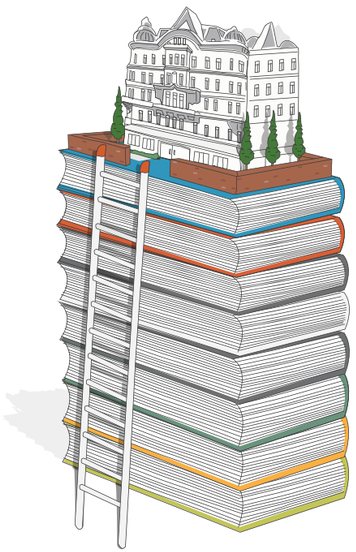
논술이나 수능에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에 집중 지원시켜야 한다. 상위권은 고려대의 학교장추천, 연세대의 교과전형, 이화여대의 고교추천, 중앙대의 교과전형이다. 올해에 건국대는 교과전형을 폐지하고 서울시립대가 신설한다.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등은 교과전형이 없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교과전형은 서울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중복지원하기에 적어도 1.1~1.2의 우수한 내신이 되어야 안정권이다.

수능최저가 없는 교과면접형에 관심을

수능이 약하지만 내신이 2등급대의 내신이고 면접에 강점을 보이면 <학생부+면접>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인하대 등은 수능최저를 반영하지 않고,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3~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40%로 선발한다.

교과전형의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서류확인, 인성면접이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학업능력을 평가한다. 역량과 관계된 사고력, 논리력을 평가하기에 학업역량과 관련된 면접을 집중적으로 연습시켜야 한다. 2018수시에서는 연세대, 동국대는 교과전형을 폐지하고, 인하대는 면접을 폐지하고 학생부 100%로만 선발한다.

수능최저가 활용되지 않는 교과전형은 학생부 등급이 높게 형성된다. 하지만 수능최저를 부과하면 학생부 등급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세종대가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며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데 경영·경제가 1.9등급 정도에서 형성이다. 하지만 인문계에서 2개 합4를 요구하는 홍익대는 경제가 2.0정도이다.



관련학과 교과 성적이 우선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관련학과의 성적만 좋으면 높이 평가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생활의 충실도와 더불어 다양한 교과에 대한 성숙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전 과목 성적이 우수하면 높이 평가된다. 경영학에 관심을 보일 때 경영 계통에 대한 활동이 필수적이지만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고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기에 수학과 관련된 활동도 높게 평가한다.

고려대의 융합형전형이나 서강대의 다양한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바로 문제해결능력, 창의력과 더불어 융합·통섭에 기초를 둔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교양을 인재의 기본 자질이라는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시켜야 할 학생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논리적 표현력과 비판적인 사고능력,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학생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로와 관련하여 일관되고 꾸준하게 열정을 보인 학생,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전형을 미리 준비한 학생,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태도와 능력을 갖춘 학생이 적합하다.

논술은 수능최저 충족을 먼저 고려해야

수능경쟁력이 강한 아이들이 논술합격률이 높게 나타난다. 수능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문 파악력, 논리적 사고력이 그대로 논술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문계는 국어, 사탐이 강할 때, 자연계는 국어,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수학과 과학이 우수한 학생이 논술에 강점을 보인다.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끼와 경험을 파악하여 적응하는 것이 합격자를 많이 낼 수 있는 발 빠른 방법이다. 수능의 경쟁력이 약하지만 수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합격률을 높이는 지역들이 있는데 학교와 선생님들의 노력이 없이는 맺어질 수 없는 결과다.

논술이 외형상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최저를 충족시키는 비율이 연대 의대의 경우 25%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 아이들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기에 결시율이 50%나 되는 대학도 있다. 또한 다른 대학과의 시험일의 중복 등을 감안하면 실제 경쟁률은 10~14대 1, 자연계의 낮은 과는 3~4대 1밖에 안 되는 학과도 있다.

논술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단 제시문 독해,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제시문 비판,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반론 등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런 기본적인 역량이 다양한 대학별 논술의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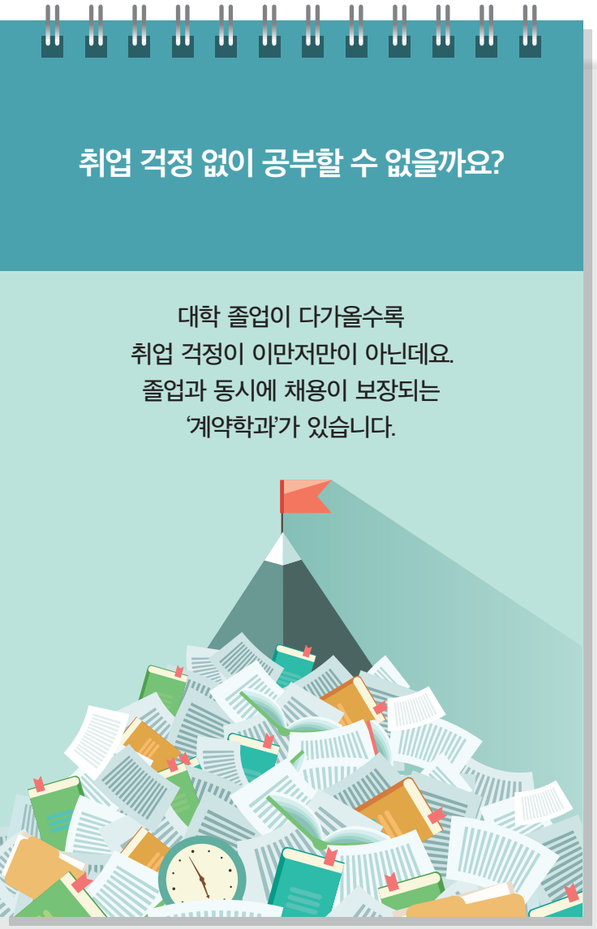
경희대 의예, 숭실대, 한국외대(LD/LT학부), 가톨릭대(간호)가 탐구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완화했고, 홍익대, 숙명여대가 수능최저를 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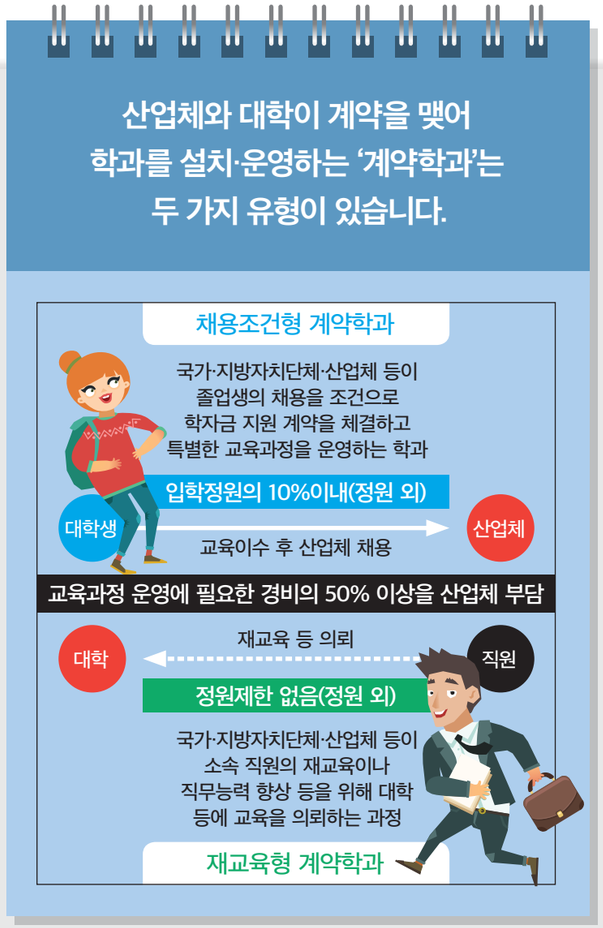
중하위권의 대학입학 돌파구

중하위권의 대학입학의 돌파구는 적성고사이다. 3~5등급 대의 학생들은 논술도, 비교과도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고난도의 문제보다 수능 2점 수준의 문제를 기본개념을 확실히 다지게 훈련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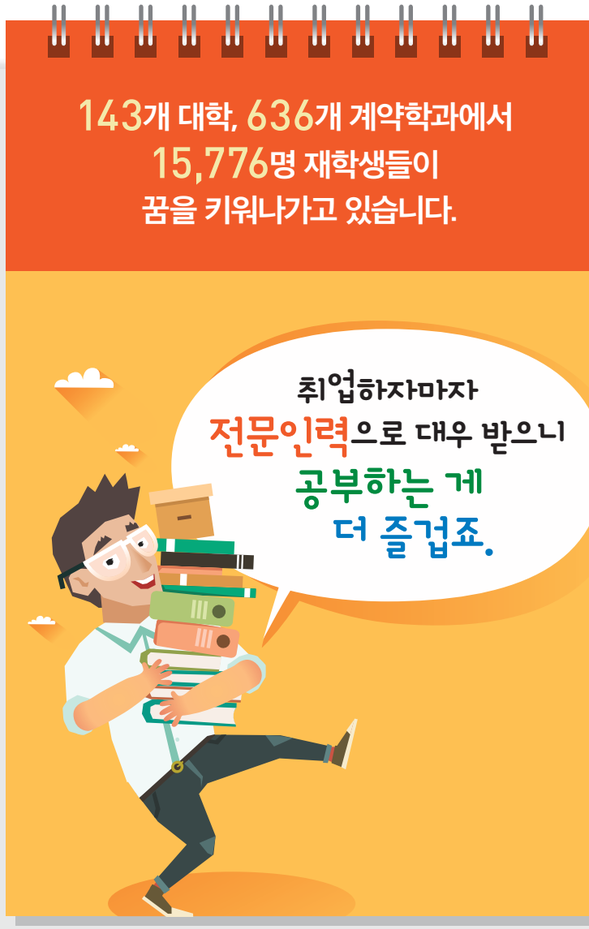
교과형 적성시험으로 출제하는 대학이 80% 정도이기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수능이 조금 모자랄 때 도전하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학이 난이도가 높기에 수학이 우수한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지원시켜야 한다. 적성검사 문제집은 대학별로 대학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외부필자 원고는 교육부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 걱정 없는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출신 학생들이 업무역량이 매우 우수하고 적응이 빠르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김○○ 부장)

"주중에 직장 상사한테 들은 기술지식을 이해 못하면 교수님한테 물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계약학과 수업은 일주일동안 직장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디지털디자인과 임○○ 학생)

"구직공고를 찾아보던 중 충북대학교에서 빅데이터 분야에서 산학연계 융합 석사과정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다. 마침 빅데이터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도중이었다. 게다가 산학 연계 과정으로 대학원 진학과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등록금 지원, 매달 우수 학업장려금 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좋은 기회였다."
(충북대학교대학원 비즈니스데이터융합학과 석사과정 신○○ 학생)

대학의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별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15년 4월 기준 143개 대학, 636개 계약학과에 15,776명이 재학 중입니다.

계약학과의 유형으로는 ①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과 ② 산업체 직원이 아닌 자가 특별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될 수 있는 '채용조건형'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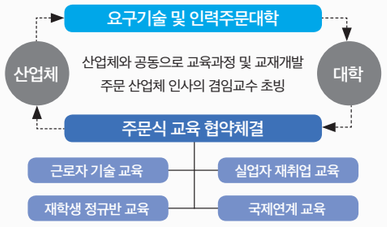
사회·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체계를 도입한 계약학과는 학생들과 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참여와 관심을 보이며 산업체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수요를 반영한 계약학과 활성화로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고, 산업체 재직자의 직무능력이 향상되어 산업계와 교육계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문식 교육







산업체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문식 교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문식 교육이란 대학과 산업체가 자율적인 협약으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생의 취업을 연계하는 산학협력 모델로, 대학교육은 현장성이 높아지고 기업은 신입직원 교육비용을 절감하여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학교(정원 내) 산업체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대학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은 해당 학생들의 취업을 약정하고 우대, 알선합니다.

* 2015. 12. 기준 현재 64개 대학, 173개 교육과정, 6,330명 참가 중(일반대, 전문대 포함)

교육논단

화해와 상생을 위한 동북아 교육



한·중·일 화해와 긴장의 시대

동북아 교육의 목표와 실천, 새로운 접근

글_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한·중·일
화해와 긴장의 시대



오늘날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아태지역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주요국으로서 세계정치와 글로벌 경제에서 갖는 비중과 위상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5년 현재 한·중·일 3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22%, GDP 규모로는 전 세계의 21%, 교역액 규모로는 전 세계의 18%를 차지하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한·중·일 간의 교역액도 꾸준히 증대되고 있어 2014년 현재 3국간 교역액이 6,300억불을 상회하고 있고 인적 왕래 또한 꾸준히 증대되어 연간 1,4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이동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은 이른바 '아시안 파라독스'의 상황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 심화되고 무역,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선 문화교류와 사람의 이동도 급속히 활발해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정치, 안전보장, 역사인식 및 도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불신과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3국 국내에서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적대적 국민감정은 여전히 폭발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중·일 관계는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와 메카니즘의 미비로 말미암아 갈등의 비용을 호되게 지불하고 있다.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노력 필요

동북아 지역은 19세기 이래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패권적 지역주의의 쓰라린 역사를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쟁과 내전을 불사하였으며 냉전시대에는 극단적 이념 대결도 겪었다. 한·중·일 3국은 이러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중일, 한중 수교 이래 전개된 양자 우호협력의 관계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신뢰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은 한일, 한중, 일중 양자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킴과 동시에 양자협력을 한·중·일의 삼자간 협력으로 그 지평을 확대,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동북아 지역은 북한의 호전성으로 말미암아 안전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북한은 거듭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라는 위험천만한 도전을 강행하고 있고 유엔과 한·중·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증유의 고강도 제재에 나서고 있어 일촉즉발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한·중·일 간의 3국 관계는 협력과 협치가 가동되고 있는 이슈영역도 존재하지만 그 3국 관계의 미래가 반드시 낙관적이라고는 결코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보다는 비대칭, 불균형의 요소에 의해 불안정, 부조화가 표면화 될 개연성이 크다. 한·중·일 3국은 국력과 발전단계의 차이, 국가 전략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비대칭성에 의해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다. 더욱이 한·중·일 3국은 각기 국내정치적 의도에 의해 자민족 중심주의가 고양되고 있으며 배타적 국익을 둘러싼 각축도 심화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팽창주의, 패권추구와 그에 대항하기 위한 일본의 재무장, 복고적 국가주의화가 노골화됨에 따라 경쟁, 각축을 넘어 대립과 충돌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역내 갈등은 동북아 지역의 역내 문제로 끝나지 않고 미일동맹을 경유하여 미중 간의 대결로 더욱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아시아 재균형을 노리는 미국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중국, 그리고 군사적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이 서로 부국강병이라는 근대적 국익개념에 사로잡혀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된다면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동북아의 3국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 관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그 실천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의 3국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안전과 평화 및 공동 번영이다. 한·중·일 3국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21세기 시대정신을 조망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에 입각하여 선린우호, 상호신뢰, 상호이익을 존중하는 전 방위 협력을 굳건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중·일 3국은 한일, 중일, 한중 수교 이래 전개된 양자 우호협력의 관계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신뢰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보다 활성화된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과 통상, 투자, 금융 등 경제분야의 긴밀한 교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생태 환경 분야, 원자력 안전, 질병 전염병 등의 보건, 마약-테러를 비롯한 국제범죄 방지 등 분야에서의 한·중·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경을 넘어선 지식, 정보, 전통 및 대중문화, 미디어, 스포츠 등 소프트 한 분야의 협력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캠퍼스 아시아를 필두로 한 한·중·일 대학생 교류 및 청소년 교류 등 미래 세대의 초 국경 이동 현상 또한 미래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더불어 3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인 감정이 더욱 깊어지도록 다양한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3국 협력이 한·중·일 3국의 공동이익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과 아태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차원이나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볼 때 동북아 3국 관계에서 독특한 위상과 역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북한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문제를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 핵 문제와 북한문제는 중일 간에도 핵심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만큼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과의 긴밀한 대화,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21세기 들어 이른바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및 세력균형의 유동화가 격렬하게 진행됨에 따라 미중, 일중 간에 협력보다는 경쟁, 경합의 요소가 점차 첨예화되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의한 패권질서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누구보다도 강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국지배 구조보다는 상호신뢰와 공생 협력에 기반한 다자간의 평화적 지역 시스템의 구축을 강렬하게 희망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이 평화와 공동번영이 추구되는 지역 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국의 좁은 의미의 국익을 넘어선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추구하는 지도자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지도자 및 지식인들 간의 초국가적인 인식 공동체의 확립이야말로 국가 중심주의적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점에서 유럽공동체 출범의 역사에서 장 모네와 같은 선구자의 역할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글_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북아 교육의 목표와 실천, 새로운 접근



동북아에서는 민족주의가 강하다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은 인접국임에도 차별성이 뚜렷하다. 언어, 문화, 관습의 측면에서 유럽보다 훨씬 그 차이가 심하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동북아 3국은 상호 협력과 상생을 위한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역사적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이다.

동북아에서 민족주의가 맹위를 떨치게 된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회주의의 몰락을 예고했던 냉전체제의 초라한 뒷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이에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자유진영에 속해있던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이웃을 맞이하게 되었다. 철의 장막을 제치고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이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

시장경제라는 새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중국은 개혁개방을 표방하며 우리에게 다가섰지만 폐쇄적이던 사회주의적 전통들을 쉽게 벗어던지지는 못했다. 이는 한·중·일 3국이 각자의 발전정도에 따라 냉전 종식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의 세계화 과정에 비대칭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에 동북아에서 한·중·일 3국의 특수성이 도드라지게 된 반면 상호협력을 위한 균질성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 같은 동북아 지형의 비대칭성에 편승한 것이 민족주의이다. 우리(We)와 그들(They)을 구분하는 기제로서의 이 이념은 타민족의 지배에 저항하고 민족의 독립에 신성함을 부여하는 근대의 산물이지만 이를 수용하는 개별 민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드러냈다. 이에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민족주의라는 공통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모습의 민족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민족주의가 역사와 결합했기 때문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동질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접착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과거에 대한 왜곡과 과대포장이 성행했고 후손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 교과서 왜곡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민족주의 역사교육은 민주주의를 전제로

그럼에도 역사왜곡이나 역사수정주의는 기대한 만큼 민족주의를 강화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사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은 생각만큼 수동적이거나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나름의 사유체계와 가치관을 가진 인격체이다. 생각할 능력 없이 교과서에 쓰여진 그대로 외우고 입력한 대로 행동하는 로봇이 아닌 것이다. 학생들은 해외여행을 가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생활하면서 인접국의 실상을 접할 경우, 교과서가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성과 합리성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민족의 힘은 찬란했던 과거사를 공유함으로써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순들을 철폐함으로써 그 응집력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들어진 과거'를 통해 구성원들을 물리적으로 결합시키려는 시도보다는 구성원 개개인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화학적 결합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의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 내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이는 바로 통합을 가로막는 지역과 신분의 장벽을 허무는 민주주의적 개혁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야말로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한민족으로 결속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이다. 우리가 민주적 개혁이 생략되어 있는 중국의 애국주의와 일본의 우경화를 불순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동북아 협력과 상생을 위한 교육의 목표도 명확해진다. 민족주의의 살 길은 바로 민주주의에 있으며 세계시민으로서의 민주시민 육성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역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보수적 민족주의가 안고 있는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함께 사는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동북아역사대화'와 같은 공론의 장을 상설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주의 과잉에서 비롯된 상처를 치유하고 협력과 상생의 동북아를 구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아교육의 해법을 과거에서 찾다

세계시민으로서의 민주시민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이는 과거 우리의 교육전통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근대적 교육제도를 수립하여 부국강병의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던 고종의 교육입국론에 그 해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1895년 2월 2일 발포된 교육조칙은 조선의 교육입국 강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을 점검하고 미래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종은 실용학문의 추구에서 교육의 방도를 찾았다. 명분이나 거짓을 추구하는 교육과 현실에서 쓰일 수 있는 교육을 구분했던 것이다. "교육에는 또한 그 방도가 있으니, 허명(虛名)과 실용(實用)의 분별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다. 책을 읽고 글자를 익히어 고인(古人)의 찌꺼기만 주워 모으고 시대의 큰 형국에 어두운 자는 문장(文章)이 고금(古今)보다 뛰어나더라도 쓸모가 전혀 없는 서생(書生)이다. 이제 교육하는 강령(綱領)을 제시하여 허명을 제거하고 실용을 높인다." 요컨대 이념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한 고종의 교육조칙은 오늘날 배타적 민족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동북아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종은 국가의 부강은 교육에 달려있고 시민교육의 성패가 곧 정치의 성공과 맞물려 있음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교육받은 시민들이야말로 가족 및 이웃과 함께 교육입국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고종은 교육받은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야말로 서로 힘을 합친다면, 문제 해결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에 고종은 "이러한 일을 하는 데서 조그마한 결함이라도 있으면 너희들 신하와 백성들도 오직 우리들의 교육이 명백치 않기 때문인 바, 상하가 마음을 합치기에 힘쓰라"고 권하고 있다. 이는 교육받은 국민들이 스스로 국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고종의 교육조칙에서 강조된 '신하와 백성'으로 표현된 시민교육의 중요성, 탈이념화한 실용주의 교육강령에 근거하여 향후 동북아 교육의 지향점을 전망해볼 수 있다. 그 핵심은 민주시민 사회가 중심이 된 동북아 3국간의 교육연대 강화에 있는 바, 이를 위해 상호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동북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동북아역사대화'와 같은 공론의 장을 상설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주의 과잉에서 비롯된 상처를 치유하고 협력과 상생의 동북아를 구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학자금지원 정책을 통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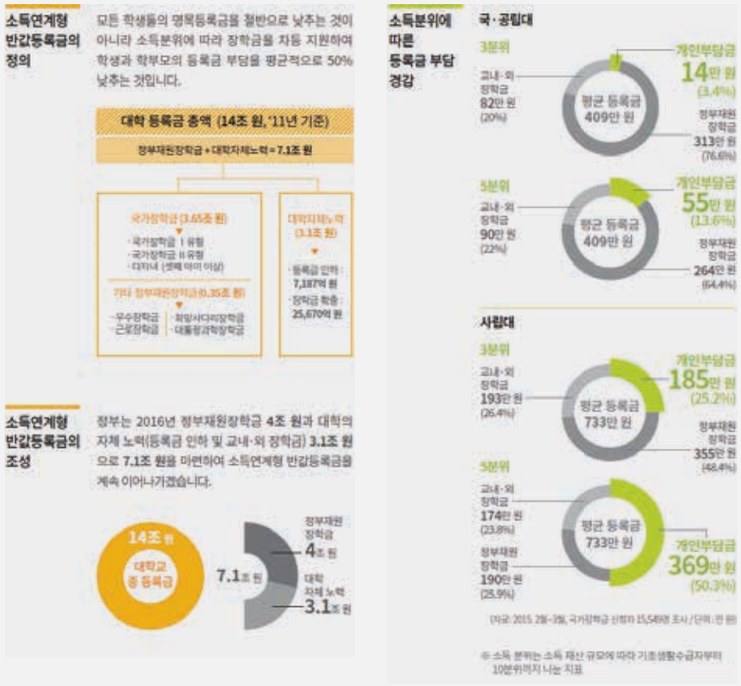
학업에 대한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2015년에 완성되어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있다. 여기서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도 등 학자금 부담금 완화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완성

국가장학금 지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5년이 흘렀다. 정부재원장학금은 2016년 현재 4조원으로 2011년 5,000억 원에 비해 약 8배나 증가하였다. 2012년 1조 7,500억 원으로 시작된 국가장학금이 2016년 3조 6,545억 원까지 확대되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와 대학이 7조원을 마련하여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을 기준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올해 정부 예산으로 4조원,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3.1조원을 확보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평균적으로 50% 경감되었다. 특히 소득 3분위 이하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는 국·공립대 102.2%, 사립대 87.2%, 소득 8분위 이하는 각각 92.6%, 69.4%에 이르러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한결 가벼워졌다.



다만,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낮추는 정책으로,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더 많이 지원받고,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지원받도록 하여 장학금이 좀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이래 대학생들의 근로시간은 학기 중 평균이 6.3시간, 방학 중 평균이 10.8시간으로 2011학년도 2학기의 8.3시간, 15.5시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고, 대학생들의 휴학률도 2014학년도 10.1%로 2011학년도 12.9%보다 2.8%p 감소하였다. 이는 국가장학금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경감되어 학생들이 그만큼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도 운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연계 장학금,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 우수장학금이 있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I유형과 대학의 자체노력 등에 따라 지원하는 II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II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 등에 따라 5천억 원을 지원한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근로는 시간당 8천원, 교외근로는 9천 5백원을 지원하여 약 13만 명의 대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희망사다리장학금 역시 중소기업 취업희망자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00만원의 학업장려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장학금은 인문100년장학금(인문사회), 이공계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 포함),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등 전공분야별로 선발하여 모두 1만4천여 명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비,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도 지원되고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하여 국가가 채무를 보증하여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만55세 이하인 소득 9~10분위 대학생과 모든 대학원생이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최장 20년 내(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에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제도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35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8분위 대학생이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취업하여

상환기준소득('16년 기준 연간 1,856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소득의 20%를 1년 단위로 매달 상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기당 지급규모는 등록금의 경우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모두 등록금 소요액 범위이며, 생활비의 경우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연간 200만 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연간 300만 원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금리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2.7%이다. 과거 시중은행은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09학년도 1학기까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5~7%의 높은 금리로 시행하였으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이후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학생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학자금 지원 제도 소개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지원

- 지원금액 : 기초~소득2분위 기준 연간 520만원(I유형) 지원
- 지원자격 : 직전학기 B학점/12학점 이상(C학점 제한적 지원) 학부생

학자금대출(일반, 취업 후 상환)

다양한 상환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제도

- 지원금리 : 연 2.7%('16-1학기 기준)
- 지원금액 : 등록금 소요액 + 생활비(학기당 100~150만 원)
- 지원자격 : 직전학기 C학점/12학점 이상 대학(원)생

국가근로장학금

등록금/생활비 마련과 함께 다양한 교내외 근로를 통한 취업역량 제고

- 지원자격 : 직전학기 C학점 이상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지원금액 :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원(시간급)

희망사다리장학금

취업/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창업분위기 조성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 취업/창업준비장려금 200만 원
- 지원자격 : 대학 학사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 및 백분위 70점 이상

우수장학금 등

이공계,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지원자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수요자 맞춤형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

정부는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대학생과 학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B학점 이상인 대학생만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2분위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C학점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하여 학업시간이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과 지방인재 장학금도 신설하여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방대학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우수근로 장학기관을 점차 확대하여 양질의 직업체험 기회를 확충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과 북한이탈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사업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한,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장학금 등 우선 감면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12학년도 2학기까지 높은 금리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 중에서 소득 3분위 이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소득 4~5분위는 4.0%p, 소득 6~7분위는 1.5%p 이자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3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생활비 이자의 전액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해주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복무기간 중에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제도, 손해금 감면제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 제도 등 신용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7월부터는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보존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였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학업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 서서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사례로 보는 학자금 대출 규제 개선

사례1 | 군복무 기간에 대출이자 先면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OO씨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약 1,600만 원의 학자금대출을 받아 매월 약 4만 원을 대출이자로 납부했다.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돈으로 이자를 납부하던 그는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16년 3월 5일자로 육군 훈련소에 입대하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출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걱정하던 그는 입대 후 이메일을 통하여 반가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덕분에, 복무기간 중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현재 조OO씨는 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없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다.

사례2 |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는 연령 제한 완화

윤OO씨는 2013년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한 학생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이어나갔으나, 2015년에 연령이 만55세가 넘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갑작스레 학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윤OO씨는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금리 대출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한 학기 동안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5년 2학기부터 만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생들에게 만59세까지 학자금 대출을 해 준다는 소식이었다. 다행히도 윤OO씨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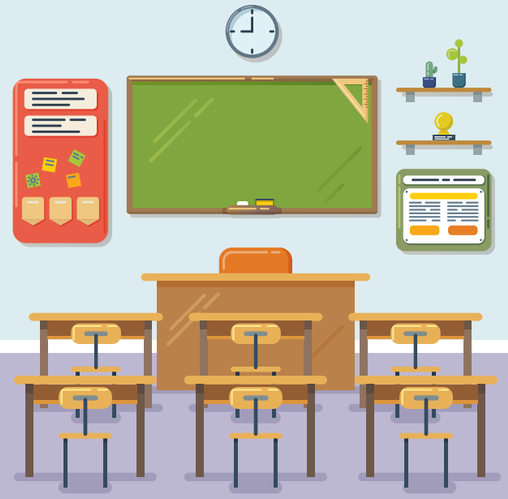
사례3 | 신입생 추가대출 제도 신설

김OO씨 201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A대학과 B대학에 지원하여 B대학에 합격하였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B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였다. 그로부터 2주 후 자신이 평소에 가장 진학하고 싶었던 A대학에 추가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뛸 듯이 기뻤으나, 사흘 동안 등록금을 급하게 마련해야 했다. 김OO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장학재단에 추가대출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고,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예전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반환해야만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에 추가합격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사례4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절차 개선

김OO씨는 대학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0만원을 받았고, 2014년 졸업한 후 △△실업 주식회사에 취업을 하였다. 2014년도에 근로소득 2,500만 원을 받아 의무상환대상자가 되었고, 2015년도부터 국세청에서 △△실업 주식회사에게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회사에 그 사실이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러던 중 2015년 6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이 개정되어 선납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해 원천공제 상환액을 미리 납부해서 마음 편하게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2015년 6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하여 △선납 제도 신설, △신고 납부에서 고지 납부방식으로 변경,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요건 추가, △대학 재학 중 의무상환 유예제도 신설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교실수업개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도록 교실 수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앞다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는 교실수업개선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수업 브랜드를 만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자기성장수업으로 수업문화 개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생의 자존감을 키우는 수업 실현을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실천하는 '자기성장수업'을 대전교육청의 수업문화개선 브랜드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자기성장수업에서, '자기(Self)'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학습 자아를 통합한 개념이고, '성장(Development)'은 학생 개인의 성장, 발달, 개발을 포함하는 총합적 의미이며, '수업(Instruction)'은 특정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목표, 자원, 상호작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성장수업은 5대 실천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존중하는 인격적 수업문화 정착을 위해 '이름 불러주기', '높임말 사용하기', 활기차고 긍정적인 창의적 수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칭찬과 격려하기', '긍정언어 사용하기',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한 협업능력 함양을 위해 '서로 묻고 대답하기'이다.


리플릿


연구보고회

지난해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자기성장수업 5대 실천전략을 수업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구안하여 매뉴얼로 개발하고, 이를 요약한 리플릿을 개발하여 초등 교원 5,200여 명에게 1부씩 배부하는 한편, 자기성장수업 워크숍을 2회 개최하여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에는 자기성장수업이 학교현장에 착근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발전하고, 전국의 수업문화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자기성장수업 5대 실천전략 적용을 통한 수업문화개선 모델 모색'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의 이러한 수업문화개선 노력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년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정책 운영 현황과 성과 분석,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인성, 창의성, 협업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수업문화개선 교육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좋은 수업을 만나다


연구보고회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참여 중심의 협력과 소통에 바탕을 둔 교실수업문화개선 브랜드 '좋은 수업을 만나다(만남·나눔·다움)'를 활성화하여 수업 중심 학교문화를 크게 확산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핵심역량 강화와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도입한 '좋은 수업을 만나다(만남·나눔·다움)'는 인성교육중심 수업 실천 교육활동을 크게 만남, 나눔, 다움으로 분류한 것으로 각 중점 사업들은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만남'은 학습 공동체를 통한 토의·토론 문화 형성을 목표로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인성교육중심 수업, 토의·토론 수업, 배움중심수업 혁신, 교직문화 혁신 등의 내용으로 유·초·중·고·특수학교 634개교 5,495명의 교원들이 올해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한다.

'나눔'은 협력적 배움이 있는 교실 만들기를 목표로 수업 우수교사의 선도수업 공개, 우수수업 공개 릴레이, 수업토크 운영 등을 통해 토의·토론, 협력학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인성교육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다움'은 교사들에게 교실수업을 보는 시각의 폭을 넓히고, 수업 관련 실행 연구 역량을 기르는데 역점을 둔다. 교사 스스로 수업에 대한 자기 성찰에 대한 방법(성찰일기, 수업 분석 프로그램 활용, 수업 코칭 프로그램 활용 등) 등을 통해 수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고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여 '교사 다움'을 갖추어 가게 한다.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좋은 수업을 만나다(만남·나눔·다움)'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중심 수업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찾아가는 수업개선 연수 눈길



'우와!, 멋지다!' 교실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요란하다.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충북의 수석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일 충북 청주 서원중학교에서 실시한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개선 연수'에서 실시된 공개수업의 한 장면이다.

이날 공개 수업을 맡은 충북 보은군 속리산중학교 이옥영 수석교사는 '강점으로 나의 미래 찾기'를 주제로 학생들이 다섯 손가락이 그려진 종이에 장점을 적고 친구의 장점도 이야기해주며 미래의 삶을 모둠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수업 적용을 통하여 얻어진 학생 활동 결과물을 함께 소개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정리된 과정을 전달할 때 공개 수업에 참관한 교사들의 관심이 쏠렸다.

교과와 연계하여 인성교육 요소와 진로, 2015 교육과정의 미래 핵심역량 요소를 적용한 교과융합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옥영 교사의 수업에는 지역 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수업을 참관했다. 참관 후에는 수업에 대한 궁금한 점과 좋았던 점 등을 나누는 참관 교사들끼리의 대화가 1시간이 넘도록 진행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창의인재 육성>, <자유학기제를 통한 꿈과 끼를 찾아가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 등 다양해지고 변화를 요구하는 교육 내용에 직면하면서 교사들의 수업개선 욕구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은 수석교사 및 수업우수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수업과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학생참여형 수업을 위한 권역별 연수>, 20개의 교과연구회와 5개의 수업공동체 지원연구회 등을 운영해 교사의 수업개선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수업의 달인’ 꿈꿔요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제 31회 초등교사 수업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초등교사 수업발표대회는 31년의 전통을 가진 교사 연구대회로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수업을 잘 하는 교사를 선발하고, 선발된 교사를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불씨로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986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는 ‘수업의 달인’을 꿈꾸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595명의 초등교사가 참가하였는데, 연말에는 대회 결과 13개 교과별 1등급 입상자를 ‘2017년 수업우수교사’로 임명하게 된다. 수업우수교사는 대외 수업 공개 및 과목별 컨설팅, 수업 장학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수업의 달인인 ‘수업연구교사’를 주축으로 협력학습지원단을 구축하여 협력학습의 허브(Hub)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협력학습지원단은 교육 현장에서 수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수업 멘토의 역할을 하며,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직접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협력학습지원단은 수업의 달인이 되기까지 자신들이 축적한 수업 노하우를 「SNS 수업이야기」를 통해 매일 1건씩 페이스북, 밴드 등을 통해 교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수업 혁신의 지름길은 ‘하브루타 수업’



광양영재교육원(원장 민영방)은 지난 5월 7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광양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원 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토론 심화과정을 실시했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말한다. 하브루타 교육협회 양동일 사무총장 등 12명의 하브루타 교육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이루어진 이번 과정에는 국어, 수학, 과학 등 학교에서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던 수업을 하브루타식 교육방법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영재교육원에서는 이번 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이후 광양영재교육원의 수업에 이를 직접 적용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에 광양영재교육원에서 진행된 하브루타 토론 심화과정은 광양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힘입어 많은 교사들이 이 과정에 참관하였다. 또한 관심 있는 학부모도 이 수업을 참관하는 등 뜨거운 관심이 그대로 나타났다.

하브루타 수업을 참관한 한 교사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넓히는, 인간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좋은 교육방법인 것 같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학교수업에 적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수업에 참관한 학부모는 “교실에서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가정에서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집에 돌아가면 하브루타 가족토론을 통해서 시끄럽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한다.”며 가정교육에서의 하브루타 교육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도 수업이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방법의 수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수업과 비교되는 하브루타식 수업방법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울산광역시교육청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행복한 I(아이) 중심 수업’에서 길을 찾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행복한 I(아이) 중심 수업’을 교실수업개선 브랜드로 정하고 학생 참여 중심수업을 실현하고 있다.

‘행복한 I(아이) 중심 수업’은 행복한 I(아이)를 중심에 둔 참여학습으로, 참여학습은 학생 중심의 협력학습, 탐구학습,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으로 수업함으로써 ‘학생은 말하고 교사는 듣는 수업’이다.

행복한 I(아이) 중심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교사 수업공감 day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은 전 학교가 교재연구와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날로 수업공감협의 YES! 교사 대상회의 NO! 동 학년 동 교과 협의 YES! 공문보고 NO!를 통해 수업에서 길을 찾는 활동을 실시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의 자발적 수업공감 분위기를 더욱 활발히 하는 수업공감 콘서트를 지난 5월 10일부터 3일간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개최하였다. 3일간 약 1,2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콘서트는 학생 참여 중심수업의 적용 사례를 나누고, 수업 전문가 초청 특강이 이뤄지는 등 ‘수업공감으로 행복한 교사’를 만드는 시간이 됐다.





수업공감 콘서트 중 울산 화암고 김은정 교사의 ‘동갑내기 과외하기의 기적, 거꾸로 수업’ 사례는 고등학교 3학년 국어교사로 2014년부터 3년간 운영한 노하우와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시간이었다. 참여하는 학습으로 행복한 학생, 수업공감으로 행복한 교사, 소통하고 협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울산교육청의 행복한 I(아이) 중심 수업으로 지난 해는 참여학습전문가(30시간 이상 연수 이수로 참여학습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실천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생 참여 전략을 제시하는 교원)를 1,500여 명 양성하였으며, 이들은 교실수업을 개선하는 선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은 참여학습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하여 각 학교별 교실수업개선 활동을 지원하며, 앞으로 3,000여 명으로 확대하여 양성하고자 수업역량 캠프·권역별 수업공감 콘서트·전문가 연수과정을 개설 중에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행복한 I(아이) 중심’ 학생 참여 중심수업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과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길을 찾아가고 있다.

제13회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수기 ● 경북 진보초등학교

참된 삶을 가꾸는 '참보배 교육과정'



글_ **박성환** 교사

참된 삶을 가꾼다는 말은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삶의 결과적 모습을 말하기보다 그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오래된 학교, 가장 젊은 학교

104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 청송군 진보초등학교(교장 이성호)는 1912년 진보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한 이래 현재까지 12,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산간오지인 'B.Y.C(봉화, 영양, 청송)'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교원들이 매우 기피하는 학교로, 정규수업교사 14명 중 11명이 새내기 교사로 채워진 '제2의 교원양성소, 청송교육대학교'로 불리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된 학교이면서 가장 젊은 학교라는 역설은 진보초등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가족은 2012년 학교의 10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작업에 지난 3년간 몰두해 왔고, 그 과정에서 100년간 축적된 학생지도에 대한 노하우와 새내기 교사의 순수한 열정, 교육적 상상력이 어우러져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다채로운 교육활동이 생산되었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한 학교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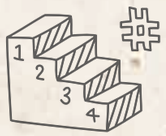
2014년 12월, 새로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약 2개월의 일정으로 이전과는 다른 진보초등학교만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만들고, 자료수집과 여건분석을 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본교는 이전까지는 학교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큰 노력을 해온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변하지 않으면 교사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2014년 말에 처음으로 학교교육과정의 변화를 학교혁신의 밑거름이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매우 부족했던 본교는 우선 정보공시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우수학교라 불리는 학교들의 학교교육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에 몰두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전국 약 100여 개의 학교교육과정을 분석해 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할 수 있었고, 학교교육과정 구성의 틀과 전개방식, 논리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작업은 약 2개월간 지속되었고, 2015년 1월 말 교직원 워크숍을 통해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약 300여 페이지 분량의 학교교육과정 책자가 완성되었습니다.



국제교류체험학습
- 중국 숙천시 실험 소학교 방문

비전과 목표를 세우기 위한 고민

교육목적의 설정은 특정의 성취나 정신 상태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형식적인 개념에 실질적인 내용을 부여합니다. 본교는 일찍이 '교육받은 사람=참보배'라고 표현해 왔으며, 참보배 교육의 뿌리를, 학생들이 참된 삶을 가꾸어 참보배가 되어간다는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참된 삶을 가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참된 삶을 가꾼다는 말은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삶의 결과적 모습을 말하기보다 그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대게는 의도된 활동)은 배움과 나눔을 통해 그들 삶에 의미 있게 자리 잡습니다. 배움은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의 형식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배움은 지성적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전인(全人)을 기른다.'는 너무나도 자명한 개념적 진리를 포함합니다. 배움을 통해 사고의 형식을 이루는 과정은 지, 덕, 체의 조화를 항시 염두하고 있으며, 동시에 폭넓은 교육활동을 요구합니다. 나눔은 배움에 비해 실천을 강조하는 과정입니다. 배움에도 나눔이 있고, 나눔에도 배움이 발생하지만, 나눔은 교육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일종의 헌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교육을 통해 일정수준의 사고형식 안에 들어 와 있다면, 그 기준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겠다는 태도와 실천과정도 함께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없을 때, 사고의 형식이란 거의 무의미해집니다. 본교에서는 헌신이나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참보배'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교는 참보배 교육과정의 주요한 과정적 목적을 '배움'과 '나눔'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에서 배움과 나눔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과거에



나라학교 가꾸기 - 독도사랑활동



논술평가

우리교육은 '만족지연의 논리'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미래의 큰 만족을 위해,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비록 힘들지라도 인내하자는 식이었습니다. 본교에서는 이러한 고진감래형 교육의 틀을 깨고자 했습니다. 배움과 나눔 자체가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배움과 나눔을 즐기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자 능력이며, 이런 습관과 능력은 어릴 적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학교생활에서의 즐거운 배움과 행복한 나눔을 바탕으

로 평생 참된 삶을 살게 하는 교육이 바로 참보배 교육과정이 바라는 교육의 모습입니다. 어릴 적부터 습득한 배움과 나눔에 대한 긍정적 습관과 능력은, 학생들을 참된 삶을 가꾸어가는 참보배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본교는 '즐거운 배움'과 '행복한 나눔'을 참보배 교육과정의 주요 키워드로 정하고, 본교가 바라는 교육의 목적(지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참보배가 되자!"

그 무엇보다 수업을 잘하고 싶은 학교

본교에서 추구하는 좋은 수업의 형태는 학생활동중심수업입니다. 학생활동중심수업이란 '실제적 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활동중심수업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토론활동중심수업, 협력활동중심수업, 체험활동중심수업, 표현활동중심수업, 사고활동중심수업이 그것입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유형의 설정은 인성교육중심수업을 학교 차원에서 보다 세분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학생활동중심수업 활성화를 위해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으며, SNS 토론과 교실토론 및 논술쓰기를 강화한 S.T.O.R.Y 토론활동중심수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는 S.E.E 체험활동중심수업 등 학교 특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수업을 실천해갔습니다.

학기말 평가가 끝난 뒤에는 학습 취약기를 극복하고 동 학년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학년합동 프로젝트 학습 주간을 운영하였으며, 1,000자 논술평가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근육 단련과 비판적 사고력 증진에 힘썼습니다. 논술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논제 파악방법, 6단 논법, 논술문 체계, 원고지 사용법'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말에는 기초부진학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이 1시간 동안 1,000자 이상의 논술문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과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고민은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수업 나눔과 성찰의 날'을 통해 전교원이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해 나갔습니다.



SNS토론

지역친화형 소·나·무 학교 프로그램

진보초등학교는 지역 친화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소·나·무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10가지 인성덕목을 선정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더불어 늘 푸른 참보배들을 길러왔습니다.

소·나·무 학교 프로그램은 '솔누리'라고 불릴 만큼 소나무가 유명한 청송군이 가진 소중한 유, 무형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소나무의 각 첫 글자는 '소리, 나라, 무릎'을 의미한다. '자연과 더불어 소리학



생태체험-학교텃밭가꾸기

진보초가 추구하는 좋은 수업의 형태는 학생활동중심수업입니다. 학생활동중심수업이란 '실제적 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토론활동중심수업

교 가꾸기'는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늘어났지만, 그러면서 점점 잊혀져가는 소리도 있다. 우리는 그 소리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마음에서 시작한 것으로, 청송군이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전통과 더불어 나라학교 가꾸기'는 '제도권 교육의 애국심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지역의 전통유산인 애국충절의 문화를 활용하여 애향, 애국심을 길러 가는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른과 더불어 무릎학교 가꾸기'는 '어른들의 무릎을 베고 시작되는 최초의 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역의 양로시설, 유관기관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효와 예절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진보초등학교의 소·나·무 학교 프로그램은 지역의 자연과 전통, 어른과 더불어 함께하는 체험중심 인성교육활동으로서, 느림의 미학과 애국충절, 효예절 실천의지를 길러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며

1912년 개교한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진보교육가족의 노력은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2012년과 2014년, 2015년 3년간 경상북도 과학교육 실적심사에서 우수교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과 2014년에는 경상북도 사이버학습 활용 우수교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제7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 학교경영분과에서 전국 1등급에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교육정보화 전국 최우수교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5년 제13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전에서는 100개의 우수학교 중 상위 15%에만 주어지는 최우수교 선정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2016년, 현재 진보초등학교 경상북도교육청이 지정하는 명품학교로서 '교육과정 명품화, 교실수업 명품화, 학교문화 명품화, 지원행정 명품화'를 참보배 학교의 4大 名品化 과제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합심하여 나날이 진보하는 명품학교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축약된 내용은 『행복한 교육』 웹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동 프로젝트학습 주간



인류지성사의 중심, 프랑스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이념이 탄생한 나라이고 문화예술의 중심이었으며, 합리성과 과학주의의 본고장이다. 그들은 교육, 과학, 문화의 상징적 중심은 프랑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교육, 과학, 문화를 총괄하는 국제기구는 유네스코(UN교육과학문화기구)이다. 본부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이념이 탄생한 나라이고 문화예술의 중심이었으며, 합리성과 과학주의의 본고장이다. 오만하고 콧대 높은 민족이라 말하지만 인류지성사에서 교육, 과학, 문화에 기여해온 프랑스의 역할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그들은 세계정치경제의 중심은 미국일지라도 교육, 과학, 문화의 상징적 중심은 프랑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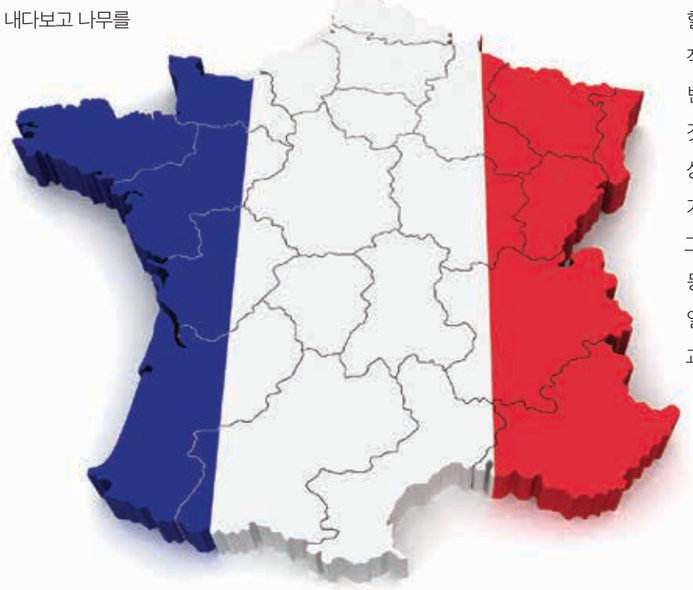
프랑스 교육의 특·장점 세 가지

우리에게 프랑스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다. 지리적으로는 멀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친숙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자유, 평등이라는 프랑스 이념을 공유하고 있고, 르누아르, 마네, 마티스, 고갱, 사르트르, 쇼팽, 에펠 등 예술가나 철학자들과 충분히 친숙하다. 논술시험으로 유명한 대입수능 '바칼로레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소르본 대학, 세계적인 명문 엘리트 교육기관 '그랑제콜' 등의 이름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올해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양국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정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한국 학교 내 프랑스의 날' 및 '프랑스 학교 내 한국의 날' 개막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파리 시내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국제대학촌(시테)에 한국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한국관은 1969년 이래 국제대학촌 내 새로 건립되는 첫 신축관이 될 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프랑스 교육의 특·장점은 뭘까. 한 나라의 복잡하고 방대한 교육제도를 짧게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배울만한 장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프랑스는 장기적 안목으로 대원칙을 견지하며 안정적 교육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시민혁명을 거쳐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근대적 교육제도도 공화국이념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오늘날 프랑스 교육은 다섯 가지 대원칙에 기초해 있다. ① 공교육과 사립교육 모두 '교육의 자유'에 입각하고 있고 ② 공립교육은 '무상교육'이고 ③ 교육은 철학적·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④ 공립교육은 종교로부터 독립적인 '세속교육'을 표방하며 ⑤ 만 6세부터 16세까지 '의무교육'을 한다라는 원칙이다. 강산이 변하고 정권이 교체돼도 프랑스 혁명 이래 200여년 이상 이 대원칙들은 철저히 지켜졌다. 1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키운다)는 말이 있다. 교육의 대원칙을 견지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십년수목백년수인(十年樹木百年樹人)'의 철학을 프랑스교육에서 읽을 수 있다.



둘째, 프랑스는 평등을 추구하는 대중교육, 전문성을 추구하는 기술교육, 수월성을 추구하는 엘리트교육 등으로 분명한 체계를 갖고 나눠져 있고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세 시대 성직자에게 한정되었던 교육을 15세기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며 대중교육을 표방한 것이 대학(위니베르시테)이고, 정치, 행정, 상업, 기술 등 분야별 영재들을 선발해 국가가 책임지고 엘리트들을 키우는 제도가 그랑제콜이다. 고등교육과정은 이렇게 평등을 추구하는 대학교육과 수월성 위주의 엘리트 교육으로 이원화되어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전문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리학교 등의 기술 고등학교 코스가 또 하나의 트랙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도 프랑스 교육제도의 강점이다. 이렇다 보니 진로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 분명하고, 자신의 적성과 실력에 맞게 어느 트랙으로 가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 전망도 뚜렷해 청소년들의 고민과 방황을 최소화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 교육은 정답을 가르치는 일방향 교육이 아니라 질문하고 토론하고 협동하면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는 열린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초등학교 미술 수업에서는 원근법 등을 이용한 그림그리기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 사랑 등의 추상적 주제를 주고 큰 도화지에 여러 명이 같이 논의하고 협동해서 표현하게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프랑스인들이 유난히 토론을 좋아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저력은 학교교육에서부터 토론하고 논술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 대입 수능시험 바칼로레아가 도입된 것은 1808년 나폴레옹 시대인데, 이미 200년의 역사를 거치며 사회적 합의와 신뢰성을 확보했다. 철학이 대입시험의 필수과목인 점도 프랑스 입시제도의 독특한 특징인데 매년 바칼로레아 철학문제는 언론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된다. 가령 참을 수 없는 것은 참아야 하는가?, 진리는 인간을 구속하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가? 경험은 인식의 유일한 원천인가? 등 이 철학문제인데 동시대인이 함께 고민해 볼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교육교류로 타산지석 삼아야

선진국이란 앞서 가는 나라이다. 국어사전에는 '다른 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라 정의돼 있다. 프랑스는 공화국, 시민법, 근대교육 등 근대적 정치·행정·교육제도를 가장 먼저 만들고 이끌어온 창조적인 나라이다. 앞서 걸어간 그들의 경험은 우리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수 있고, 프랑스 교육의 장점에서 우리는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프랑스 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보다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즉 교육과정보다는 교육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지식을 갖게 되는가보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과 근본적 노하우를 학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 학급긍정훈육법

2013년은 교사로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그해 '교직을 잘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학급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학생들과의 만남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스스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교사로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던 2013년 9월. 그때 그 시절,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난 책이 바로 제인 넬슨의 『Positive Discipline In the Classroom(학급긍정훈육법)』이었다. 책을 읽으며 내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휘둘렸는지, 그냥 학생들이 일으키는 바람에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다. 학급긍정훈육법을 알게 된 후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도 가능한지 궁금해졌고, 저자를 만나기 위해 워크숍에도 참여하였다.

학급긍정훈육법이란?

학급긍정훈육법(이하 PDC)은 학급에서 가치 있는 사회적 기술과 인생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학생들을 대할 때 교사는 한 인간으로서 인격과 감정에 대해서는 친절하지만, 한 인간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약속과 책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학생들은 방종이나 거부감, 두려움이 아니라 교사와의 연결에서 오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공동체에 공헌하며(소속감), 자신이 가치 있고 능력이 있으며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PDC에서는 학생을 보상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존재로 여긴다. 존중과 협력의 학급문화를 만들어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반성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돕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학생 스스로 생각하게 하며, 이를 위해 설명보다 질문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급규칙을 만들고 학급 일정을 세우고, 학급이나 학교의 행사에도 함께 기획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급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는다.

학급긍정훈육법을 접한 후 우리학급은 아침마다 원을 만들고 고마운 친구나 선생님에게 감사표현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모두 돌아가며 감사를 나누고 나면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감사를 나누는 방식은 '_(이름)__야, _(행동)_고마워.' 문장을 기본으로 하였다. 매 순간 학생들이 감사나누기를 경청하지는 않는다. 그때는 "여러분 아침 감사나누기 시간이 소중하나요? 스스로 경청하고 있는 사람은 엄지를 위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하여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거나 학급회의 안건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문제를 비난으로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과 학급회의로 해결하였다. '감사나누기'나 '칭찬퀴즈'가 끝나면 아이들을 안아 주었다. 포옹이 부담스런 아이들과는 하이파이브, 하이텐(두 손바닥 마주치기) 등을 하였다. 그렇게 학생들과 관계를 맺으며 아침을 시작하였다.

성공적인 'PDC 학급회의'를 위한 노하우

학생들이 소속감과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은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급회의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치 있는 일이며, 학생들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PDC 학급회의를 위해 몇 가지 기술을 익히면 도움이 된다.

원으로 둘러앉기 존중의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 앞에 책상을 두지 않고 의자만으로 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서로 볼 수 있으며 학급회의는 학교생활 중에서도 뭔가 다르고 특별하다고 여기게 된다.

감사하고 칭찬하기 감사하기, 칭찬하기는 누군가가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었던 때를 떠올리고 학급 전체 또는 모둠별로 그 경험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름 존중하기 PDC학급회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생들이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때 타인과 더 의미 있게 연결되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존중하는 의사소통기술 사용하기 '경청자 되기'는 한 학생이 발표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손을 들어 발표자의 흐름을 끊어놓는다. 이때 발표자와 학생은 조금 전에 느낀 점을 이야기 주고받으며 경청기술을 배우게 된다. '차례 지키기'는 말하기 막대를 이용해 옆으로 전달한다. 이때 막대를 전달받은 학생은 이야기를 하거나 '통과'를 할 수 있다. 두 바퀴를 도는 동안 내성적인 학생은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말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기회를 가지며, 이미 발표한 학생들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

해결방법에 집중하기 처벌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PDC 학급회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한다. 즉 '문제와 해결책이 관련이 있는가?' '해결책이 존중하는 방식인가?' '해결책이 합리적인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억하는 것이다.

롤플레잉과 브레인스토밍 롤플레잉(역할 연기법. 어떤 문제해결이나 이해를 위해 당사자가 문제의 주인공처럼 실연해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아한다. 특히 선생님 역할을 맡을 때는 더욱 그렇다. 문제를 깊이 있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감정을 가라앉히는데도 도움이 된다. 롤플레잉 후에는 바로 이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해결방법 선택하기 롤플레잉과 브레인스토밍을 한 후에 목록을 만들고 함께 읽으면서 최선의 해결방법을 선택한다. 학생들이 선택한 제안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야한다.

또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교사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상황에 종종 휘말리게 되고 판단하려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교사는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누가 잘못 했는지 판단하는 판사가 아닌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교사임을 잊지 말자.

학급긍정훈육법을 만난 후 나의 변화

학급긍정훈육법을 만나기 전 학급을 운영하는 기본 방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우리 반이 질서가 있었으면, 우리 반이 다른 반보다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이들이 날 사랑했으면 이런 바람들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다 아이들이 교사를 좋아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흔들리기도 하였다.

학급긍정훈육법을 만나며 난 완벽한 교사도 훌륭한 교사도 아닌 실수를 하며 성장하는 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올바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식물에게 물이 필요하듯, 아이들에게는 격려와 소속감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꾸릴 준비를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할은 달콤한 순간이 아니라 교사의 자발적인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순간도 있지만, 나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볼 때면 참 마음이 편하다. 순간순간 일으키는 아이들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튼튼한, 그러나 나뭇잎으로는 아이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사를 꿈꾼다.

김성환 교사는 생활부장으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던 중 학급긍정훈육법을 알게 됐고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워크숍에 참가하며 저자인 제인 넬슨을 만나 공부했다. 이후 학교 현장에 이를 적용해 직접 교육효과를 얻으면서 같은 고민을 하는 교원들을 위해 학급긍정훈육법을 전파하고 있다.

명예기자 리포트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땀과 희망으로 써내려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편집실>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들의 기사 전문과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등교거부 학생을 위한 새로운 학교 탄생



지난 4월 1일, 일본에서 새로운 형태의 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New, Next, Necessary, Neutral 등의 N에서 따온 'N 고등학교'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고등학교다. N 고등학교는 일본 동영상 운영 업체 니코니코사의 모회사 가도카와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등교거부 학생이 18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일본 현실에 대한 우려로 만들어진 이 학교는 차세대 교육 모형으로서도 기대를 받고 있다.

학교 교육법 제1조에 규정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N 고등학교 본교는 오키나와현 우루마 시 요나시로이케이에 있다. N 고등학교는 학생들 개개인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교육을 목표로 4월 16일, 1,500명의 신입생을 받았다. 수업과 질문, 과제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고 등교는 1년에 5일만 하면 된다. N 고등학교는 교과 수업은 물론 프로그래밍, 패션, 게임, 미용 등의 수업도 진행, 진학과 진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우 관계 단절 등 인터넷 학교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학교 측은 인터넷으로 소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 모형에 새 바람이 불고 있는 시점, 등교거부학생 문제와 교육의 획일화의 해결 방안으로 인터넷 고등학교를 내세운 일본의 시도에도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고등학교가 일시적인 시도에 그칠지 중등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편리하고 비용부담이 적다는 인터넷 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http://nnn.ed.jp/).

강지영 명예기자(프리랜서)

학부모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대전 반석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 초청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학부모 60명을 대상으로 "왜 소프트웨어 교육인가?"라는 주제로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재광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을 알아보는 연수였습니다.

김민정 명예기자(학부모)

오세득 셰프와 함께하는 '쿡(Cook+꿈)'



지난 5월 14일(토) 한바다중학교 학생 27명, 광안중학교 학생 10명, 고등학생 10여 명의 학생들은 '오세득 셰프와 함께하는 수영팔도시장을 부탁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오세득 셰프와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체험 콘서트 쿡(kook+꿈)' 프로그램에 참여한 진언정(한바다중학교 3학년) 학생은 "나는 미래에 호텔 조리장이 꿈이에요. 오세득 셰프님을 집과 가까운 시장 안에서 뵙게 되니 시장만큼이나 나의 꿈과도 가까워진 것 같아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특히 쉐프가 직접 내가 꿈꾸는 요리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쉐프로서의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들을 수 있어서 요리사에 대한 꿈을 용기 있기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박은희 명예기자(한바다중학교 교육복지사)

책 읽어주는 아빠, '왜요 아저씨'



대전에 사는 엉뚱한 아빠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취재를 간 나에게도 책을 읽어준다. 이 엉뚱한 아빠의 별명은 참 많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책 읽어주는 아빠', '왜요 아저씨'.

그의 일과는 책과 함께 시작해서 책으로 끝난다. 그의 직장은 현재 대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토종 서점 '계룡문고'. 아이들에게 그는 '왜요 아저씨'다. 책을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질문을 던진다. '왜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 신경 써줘야 하는 늦둥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책읽어주는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나에게 오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었더니 점점 많은 곳에서 나를 불러주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을 뿐인데, 그분들이 내가 계속 책을 읽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책을 읽어주러 갑니다."

서영식 명예기자(sns전문가)

학교를 다니고 싶었던 사람들과의 35년
- 김해야학 박충근 교장선생님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배우지 못했던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던 이들에게도 기회가 생겼다. 바로 야간학교 '야학(夜學)'이다. 그런 그들과 35년을 함께해오며 야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 바로 김해중앙여자중학교 박충근 교감선생님이다.

"대학시절 야학을 위한 난방비를 벌기 위해 일일 찻집을 열고 전단지를 붙이며 학생과 교사를 모집하며 시작한 지 어느덧 35년이 흘렀네요."

낮에는 김해중앙여자중학교 교감으로, 밤에는 김해야학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낮과 밤을 이어가며 교육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며 운영하고 있다. 교감의 직책으로도 학교살림을 돌보느라 어깨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밤11시까지 계속되는 수업을 버텨가며 김해야학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박충근 김해야학 교장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야학에 와서 공부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감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야 하잖아요. 제가 교직에 있는 한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남보라 명예기자(신어초등학교 교사)

NCS 적용한 기계과 수업 들어보셨나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이 낯설지 않다. 지난해부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NCS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맞는 NCS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으며, 직무능력적성평가 또는 직무능력면접을 준비하면서 취업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NCS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안산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실습실에서 NCS 교육과정(직무능력단위수업)을 적용한 '산업설비' 참관 수업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수업 대상은 기계과 3학년 학생들이었다.

수업의 주된 내용은 '용접검사와 시험법'이었는데 주요 능력단위 수행에 준거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다. 특히 학생들이 실습과정 영상을 보면서 서로 묻고 답하면서 배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양지훈 명예기자(안산공고 교사)

'플라즈마'를 배워요!



철원교육지원청은 5월 11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지역특화교육과정(플라즈마 산업인력 양성이 주제) 개강식을 개최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특화교육과정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참여 학생들에게 애향심 고취 및 진로진학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특화교육과정은 9차시로 이루어지며 플라즈마의 이해 및 산업에서의 공학자의 역할, 나노과학기술의 농업분야 응용, 철원목재문화체험,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해를 맞는 지역특화교육과정에 신철원고등학교, 김화고등학교, 김화공업고등학교 1~2학년 학생 30명이 참여한다.

홍정은 명예기자(강원도교육청 대학입시지원관)

물 자원의 소중함을 체험해 보세요



앞으로는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 보다 물과 공기가 더욱 중요해지고, 특히, 물 산업은 블루골드라 일컬어질 정도로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청다목적댐은 1975년부터 1981년까지 대전시와 청주시 사이의 금강 위에 세워진 다목적댐으로 대청호는 저수량으로는 소양호, 충주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댐 아래의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을 지나 댐상부에 조성된 공원에는 대청댐 물 문화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청댐 물 문화관은 지난 2004년 7월 6일, 기존의 대청댐 물홍보관을 증축하여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물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제1전시실 물관(1층), 제2전시실 생태관(2층), 제3전시실 지역문화관(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민 명예기자(학부모)

우리 고장 역사 알기



포천시에서는 매년 포천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발전과 향토사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한 반월 문화제와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이 뿌리내린 고장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각 학교의 진로체험과 연계하여 향토유적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설사와 함께 포천의 주요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고장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포천일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향토문화답사 동아리' 외 6개의 동아리가 연계하여 향토유적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포천의 문화 유적을 답사하였다. 이윤정 학생(2학년)은 "포천에 이렇게 많은 문화재와 역사적 인물들의 삶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역사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였다.

강병희 명예기자(포천일고등학교 교사)

경북의 독도교육은 이렇게

우리는 독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는 알고 있지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독도에 가보는 것도 사실 어렵지요. 그러나 관심을 갖고 주위를 살펴보면 독도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경북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과정을 소개합니다.

1. 독도 지킴이 동아리 운영

경북 내 초, 중, 고 동아리 110팀을 운영합니다. 일본의 장기적 독도침탈전략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독도사랑 마음을 키우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합니다.

2.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산하기관인 독도박물관에서 주최합니다.

3. 독도힐링캠프

사회 소외지역에서 독도의 감동적 이야기를 전하며 꿈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민 누구나 독도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만들었습니다.

4. 초·중·고 독도 올바로 알기 교육 프로그램

독도와 관련하여 중·고등학생의 독도관련 동아리 및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 **독도수호 중점학교 :**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기르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독도지킴이 학교 :**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동아리 교육을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독도바로알기 교육주간 :**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4월 둘째 주를 독도 바로알기 교육주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교사 - 전국 역사지리교사 독도포럼

독도교육을 활성화하고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일선 학교의 역사지리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럼입니다. 해마다 8월에 3일 정도의 일정으로 열리는데 올해는 11회째입니다.

6. 사이버 공간

사이버 독도 (http://www.dokdo.go.kr)

사이버 독도사관학교 (http://dokdo.prkorea.com)

신재일 명예기자(경북도청 사무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독도는 우리땅

-광주교대 독도체험관을 찾아서-



광주광역시 풍향동에 자리 잡은 광주교육대학교에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교육으로 채워진 웅장한 풍향문화관이 있다. 이곳은 2014년 3월에 개관하여 매년 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방문하여 체험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도체험관은 풍향문화관 1층과 2층에 마련되어 있다. 독도체험관은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독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역사의식을 일깨워주도록 꾸며져 있다.

독도 체험은 풍향문화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다. 1층에 들어서면 우리를 반기는 것은 문화관 한 쪽 벽면 가득히 동도와 서도 이미지로 꾸며진 실내 암벽등반 시설이다.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독도를 몸으로 부대끼고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며 독도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몸으로 느끼는 공간이다.

독도체험관 2층은 '역사이야기', '자연이야기', '미래이야기'의 코너로 나뉘어져 있다. 다채로운 체험과 전시 관람을 통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독도를 바로 알고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한반도 끝자락에 자리 잡은 호남 지방에서 광주교대 독도체험관은 보석 같은 존재이다. 광주, 전남, 전북 등 지역의 학생들에게 독도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고 실제적인 독도에 대한 지식과 의미를 알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커다란 행운이다.

신현태 명예기자(노화초등학교 교사)

공부머리 키우는 여섯 가지 기능(上)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는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공부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자신의 전두엽 실행기능 중 가장 뛰어난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들이었다.

내게 찾아온 어머니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신다. "우리 애가 머리는 나쁘지 않은데 공부머리가 없어서…." 공부머리. 필자도 어려서부터 들어본 말이다. 근데 정말 '공부머리'란 뭘까?

공부머리라는 정확한 학술적 용어는 없다. 그래서 공부머리를 '공부 잘하는 데에 필요한 두뇌의 역량'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 보았다. 공부머리가 좋으면 그만큼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니까.

사실 지능은 성적에 15~22% 정도(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거꾸로 말하면 성적의 78~85%는 지능 외의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다.

전교 1등 아이들의 '공부머리' 비밀

미국 하버드 대학의 린 멜츠(Lynn Meltz) 박사 연구진은 공부를 잘하는 데에 필요한 두뇌의 기능을 6가지로 언급하였다. 계획하기, 조직화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유연하게 생각 전환하기, 점검하기, 기억하기가 이에 해당된다. 지능보다도 이상의 6가지 능력이 성적을 잘 받는 데에 더 관련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6가지 기능을 전두엽의 실행기능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평소 나의 경험하고도 잘 맞아떨어졌다. 과거에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던 학생들을 섭외해서 그들의 공부 비법을 알아보는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적이 있다. 내가 맡은 역할은 이들이 두뇌가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만나서 면담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았다. 신기한 것은 이들의 지능지수(IQ)가 높기는 하지만 최상위는 아닌 우수한 수준, 상위 10% 정도였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의 전두엽 실행기능들은 상위 1%에 속하고 있었다. 성적과 관련이 깊은 것이 지능보다는 전두엽의 실행기능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는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공부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자신의 전두엽 실행기능 중 가장 뛰어난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들이었다.



이런 예는 나의 진료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성적은 밑바닥인 학생들을 보면 지능이 높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두엽의 실행기능은 대부분 바닥권이었다. 이들에게 전두엽 실행기능, 그러니까 앞에서 린 멜츠 박사가 이야기한 6가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 습관을 갖게 해주면 이들의 성적에 많은 향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부머리는 있으며, 이것은 지능이 아니라 전두엽의 실행기능이라고 하는 6가지 능력과 연관이 깊다.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 계획하기

어떻게 하면 이런 중요한 능력을 어려서부터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하나씩 찾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답은 생활습관(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을 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전두엽의 실행기능 중 첫 번째로 언급되는 계획하기는 사람의 두뇌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학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습관(엄밀히 말하면 습관이라기보다는 기능이다)을 갖는 것은 어려서부터 할수록 유리하다.

계획은 공부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뇌는 모든 과제를 수행할 때 계획을 세운다. 장을 보는 것이 그렇고,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갈 때에도, 여행을 갈 때에도 계획을 세운다. 일상생활에서도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은 공부할 때에도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 그러니, 어린 나이부터 일상생활을 계획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면 결국 공부머리를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을 계획적으로 하려면 그보다 먼저 생활의 정리 정돈부터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의 아이들이라면 계획성은 일상생활의 정리 정돈과 관련이 깊다. 아침에 자기가 해야 할 방 정리, 세수와 양치질, 옷 갈아입기, 학교 준비물, 가방 챙기기를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고 자신의 다음 행동들을 기억하고 수행하는 좋은 연습과정이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부모가 다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처음 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연습하는 과정 없이 지시만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나무라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방법은 책상, 방문, 부엌 냉장고, 화장실 등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순서, 예상 시작 시간을 적어 놓은 종이들을 붙여 놓고 아이 스스로 그것들을 확인해 가며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때에도 아이가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그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 주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설명을 듣기를 좋아한다면 목록형으로 할 일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 좋다. 아이 스스로가 어떤 형식을 좋아하는지 결정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도 피해야 할 실수이다. 이렇게 하면 몇 시에 일어나야 할지, 식사는 몇 시까지 마쳐야 할지, 집을 몇 시에 나서야 할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아이의 머릿속에도 남아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자기 책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주고 옷과 방 정리를 시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 점차로 숙제를 하는 시간,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등의 일상생활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힘이 붙게 된다. 하지만 아이의 능력이나 습관에 상관없이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해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어 오히려 강박적인 아이로 만드는 부모도 많은 것 같다. 항상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면서도 한발이 아닌 반발만 앞서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이 아이의 기상 시간, 넓은 의미에서 아이의 수면 시간과 연관이 있게 된다. 아이의 잠자리에 드는 시각과 자는 시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다음에 더 살펴보도록 하자.

*공부머리를 만드는 비결은 다음호에도 이어집니다.



노규식 박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청소년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전임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외래교수 겸 연세 휴 클리닉 원장으로 일하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상담해 오고 있다.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방법

일본의 의도적인 역사왜곡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교육현장의 의견을 명예기자들이 소개합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첫걸음은 아이들에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설명하는 일부터라 생각합니다. 독도에 관한 책을 다수 출판해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수업시간에 독도의 역사와 우리 땅인 근거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잘못 인지된 독도영토 미래 세대들이 고쳐나가지 않을까요. 또한 학교에서 최소 세 번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한다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과 그 이유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수정·이세린 / 중학생

학교뿐 아니라 평생교육에서도 독도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부들이 많이 찾는 문화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서 독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소정의 상품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도 관심을 모으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 독도광고를 다수 게시해서 독도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주연 /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 큰 화제를 모으는 건 드라마입니다. 최근 방영된 「태양의 후예」나 「유품이 나르샤」 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처럼 독도를 주제로 드라마를 제작하면 국민들은 물론 특히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을 것 같아요. 독도지킴이 안용복, 최초의 독도의용수비대, 조선시대 독도를 관리하던 수토사 등 독도와 관련된 역사 소재와 시나리오는 많습니다.

박동하 / 고등학생



예손공방 작가 서현정作

가장 좋은 교육은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교육입니다. 최근에는 독도관광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학교 체험활동과 수학여행을 독도로 계획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도 땀 흘리며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와 그곳 주민들을 학생들이 보게 되면, 독도가 정말로 우리 땅이며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입니다.

하헌우 / 교사

독도를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한마디가 세계를 들썩이듯이, 아이들이 유명인사가 된 후엔 독도를 알리기 더 쉬울 것입니다.

임광호 / 교사

'독도는 우리 땅'처럼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노래를 만들어 쉽게 접할 수 있다면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미라 / 학부모

국가차원에서 독도관련 음악 공연전이나 연주회를 많이 열었으면 좋겠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많은 이들에게 독도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것처럼 음악은 대중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많은 음악가들이 독도를 노래하고 연주하면 좋겠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박우주 / 첼리스트

학생들이 독도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독도교육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독도에 서식하던 강치 이야기를 영상이나 동화로 만드는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독도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독도지킴이가 되지 않을까요? 이 외에도 독도에 자생하는 식물과 조류, 그리고 독도의 역사 등의 콘텐츠를 동화로 만들고 영어자막 혹은 영어더빙을 통하여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준 / 마을신문 기자

독도를 알리는 최고의 방법은 세계적인 지리학자와 고고학자를 통해 독도가 어느 나라에 속한 땅인지 자료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한수진 / 학부모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면 세계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독도에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나 의견을 표명하면 한결 주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서연 / 초등학생

IT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SNS 등에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고 널리 알리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독도를 형상화하는 플래시몹 혹은 한류스타들이 출연한 짧은 영상을 만들어 수많은 한류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수 / 학부모

NEWS BRIEFING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발표

교육부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정규교육과정이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자유학기제 본격화와 교실 수업의 혁신, 학생 동아리 활성화, 돌봄교실 정착 등 학교 현장의 변화와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적실성 있는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우선, 학생 수요에 맞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영역별·수준별·무학년제 프로그램을 3월 시작과 동시에 개설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흡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동아리 연계형 프로그램'이 개설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소질·적성과 진로 개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사고력 향상을 위해 STEAM, SW프로그램을 창의·융합 선도학교('15. 50교) 및 SW 선도학교('16. 900교)를 중심으로 정규수업과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교육부는 올해 신규로 농어촌, 저소득층, 다문화 밀집지역에 방과후학교 강사 1,000명을 지원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돕는다. 농산어촌 학교에서 ICT 기기를 활용하여 온라인 콘텐츠 및 원격교육방식의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업·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하는 교육기부 자원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코너를 신설하고 온라인상 매칭(www.teachforkorea.go.kr.) 기능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 돌봄교실 강화

돌봄교실은 '15년 24만 명에서 '20년까지 약 26만 명으로 약 2만 명을 확대 수용하고, 돌봄연계형 예체능 프로그램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맞벌이 학부모 등의 돌봄교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신청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7학년도부터 활용하기로 하였다.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전국 140개)와 시·도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컨설팅을 통한 현장 문제해결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시·도별 퇴직교원, (학부모)봉사자 등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대학생 근로장학생을 선발하여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2016 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 발대식 개최

"자유학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의 현장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받은 교사 멘토단 204명과 학부모 서포터즈로 구성된 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의 발대식이 지난 5월 23일 열렸다.

교사 멘토단은 자유학기 운영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사로 구성되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온라인 상담, 권역별 현장협의회, 학교 방문·유선 상담 등의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한다.



'에너지 자립 학교(eS 스쿨)' 시범사업 추진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초·중등 및 대학 건축 시범사업(가칭 '에너지 자립학교')이 추진된다.

'에너지 자립학교(eS 스쿨)'는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자체 생산·활용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학교(eS 스쿨)'에 초·중등 신설학교 두 곳과 국립대 신축건물 한 개동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된 학교에 대해 공사비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찜통교실 및 냉골교실 해소를 위해 적정 냉난방 공급 및 전기요금 인하 등과 함께 에너지 자립학교 건축공법으로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 자립학교(eS 스쿨)는 찜통교실·냉골교실 해소 및 에너지 교육 모델로 시범 적용 후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교육협력 길 연다



박근혜 대통령이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동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를 순방한다.

박 대통령은 3개국 방문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해가는 협력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발협력과 문화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ODA 사업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사업의 출범식에 참석하고, 우리 정상으로는 최초로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올해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창조경제·문화·교육·관광 분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내 마음 속 선생님의 이야기, 함께 나누세요!



교육부는 스승 존경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5월 11일부터 「내 마음의 선생님」 대국민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 사업은 학창시절 선생님과의 추억과 삶의 가르침 등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기획 · 추진되는 사업이다. 5월 중, TV 공익광고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스토리는 특집 기획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9월에 방영하는 대국민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내 마음의 선생님」 사업은 대국민 공모와 공익광고 캠페인,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선생님에게는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주고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에게는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교육부 「내 마음의 선생님」 공모 홈페이지(www.moe.go.kr/ssam)를 통해 학생과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2016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오는 6월 14일까지 '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4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80점) 및 기준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Ⅰ유형 최대 지원금액을 520만원으로 전년보다 40만원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표> <2016 소득분위별 Ⅰ유형 연간 지원금액> (단위·만원)

년도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5년	지급액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2016년	지급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증액		40	40	40	30	22	-	-	-	-

행복한 교육

"집에서 무료로 받아 보세요"



발행일 2016년 6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
편집인 대변인 이승복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이재력
교육연구사 곽은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80

편집실
편집장 황자경
기 자 이순이 한주희
사 진 김경수 최원석 이대원
디자인 김수지
영 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가격 1,700원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정책 정보지 『행복한 교육』을
교무실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받아 보세요.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행복한 교육』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안내 홈페이지(http://happyedu.moe.go.kr) → 구독신청 → 개인(모니터단) 신청하기 / 학교단위 신청하기 / 교육모임 신청하기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풍부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에서 책에 싣지 못한 원고 전문과 지역 교육뉴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happyedu.moe.go.kr/

五 자 만 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한) 마음으로'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미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염원을 담아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재치를 담아 5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매달 20일까지 '행복한 교육(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응모하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五자만담 당첨자

5월호 주제 : "가족이란 ○○○○○(한) 존재이다"
김지애(가슴이뭉클), 이미경(피로회복제), 송현아(슈퍼히어로), 김재현(늘함께하는), 이지영(가화만사성)님 축하드립니다.

대학알리미 홍보영상

대학알리미를 통해
투명한 대학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대학알리미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체험수기 공모전



접수기간
2016. 6.1(수) ~ 7.29(금) 18:00 까지

대학알리미란?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대학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포털사이트(구글, 다음, 네이버 등)에서 '대학알리미'로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academyinfo.go.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대학 및 학과 선택 시 참고 할 수 있는 전국 대학의 정보 (등록금, 취업률, 경쟁률, 장학금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모 부문
대학알리미 및 공공정보를 진로·진학에 활용한 체험수기 공모전

참가 대상
학생 및 교원
※ 학생 및 교원으로 나누어 모집 / 개인만 참여 가능

문 의 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TEL. 02-6919-3881~2
E-mail. open@kcue.or.kr

시상 내역

구 분	상 격	학 생	교 원
대 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1명 50만원	1명 100만원
최우수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상	2명 30만원	2명 50만원
우 수 상		3명 20만원	3명 30만원
장 려 상		10명 10만원	10명 10만원

※ 학생 및 교원 32작품 선정 및 시상, 시상기준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대학알리미 검색